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100% GUARANTE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66호

Thursday, March 14, 2024 A

푸틴, 김정은에 ‘핵보유국 인정’ 선물?

“우크라진 지원한 북에 보답” 분석
‘핵우산’ 표현으로 NPT 시험한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리아노보스티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핵과 관련해)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이 핵 비확산 체제와 관련해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처음이다.

‘핵우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 동맹국의 핵전력을 통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푸틴은 ‘자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핵우산’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해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이라고 불리는데, 국제사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들 국가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협상이 결렬된 후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핵을 용인하는 전제하에 핵군축 협상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정보국(DNI)도 지난 11일 공개한 연례보고

서에서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활용하려고 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푸틴의 이날 발언은 김 위원장의 숙원을 지지해 준 셈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푸틴의 발언은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협적이며 대발적인 언사”라며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해선 안 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백일현·정영교·박현주 기자 >> 5면 ‘푸틴’으로 이어집니다

재스민 윤, 버지니아주 최초 한인 여성 연방판사 탄생

버지니아 주 최초로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다. 연방상원은 12일 재스민 윤(Jasmine H. Yoon·43·사진) 변호사를 연방 법원 버지니아주 서부 지법 판사로 최종 인준했다. 이에 따라 윤 신임 판사는 버지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으로 일해왔다. 당시 백악관 측은 “윤 지명자는 법원을 리드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사수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윤 판사는 울산 태생이다. 중학교 2학년 때 메릴랜드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다. 버지니아대학에서는 최우등 졸업생으로 기록됐고, 20대 후반에는 연방 검찰 버지니아주 동부 지검 검사로도 6년간 일했다. 이 기간에 80건 이상의 금융 범죄 및 공공 부패 사건을 수사했다.

윤 판사는 윤국중, 윤덕희씨의 2녀 중 차녀다. 남편 크리스 캐버노 역시 법조인으로 현재 연방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민자들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의 아시아계 연방 법원 판사가 됐다.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윤 판사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라며 “우리는 윤 판사가 사법부의 위대한 자질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판사는 오는 7월부터 마이클 어반스키 판사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앉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윤 씨를 연방 판사로 지명했다.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씨는 판사 지명 전 금융 기업인 캐피털 원에서 사내 윤리 담당 부사장

장열 기자

양당 흔드는 3지대 66곳 승부 가른다

총선 D-27 초접전지 변수

종로 개혁신당 금태섭, 중도표 잠식
홍영표 등 민주 탈당파, 야당 발목
제3정당 득표력따라 결과 바뀔수도

‘정치번지’ 서울 종로에는 8년 만에 3자 구도가 펼쳐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33%, 광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 39%로 격차는 오

차범위 안(6%포인트)이었다. 개혁신당 후보인 금태섭 전 의원은 4%에 머물렀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득표력이 승패를 가를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3월 11~12일, JTBC-메타보이스, 무선면접).

박용찬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접전을 벌이는 서울 영등포구에선 이 지역에서 재선했던 새로운미래 소속 신경민 전 의원이 변수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

서 박 전 위원장 39.9%, 김 의원 35.4%였는데 신 전 의원은 10.3%를 기록했다. “신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2월 5~6일, 여론조사공정, 무선면접-ARS).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3지대 후보의 힘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효성·장서운 기자 >> 14면 ‘제3지대’로 이어집니다



일본 첫 민간 로켓
발사 직후 폭발

일본 우주 벤처기업 스페이스워이 13일 오전 11시쯤 혼슈 와카야마(和歌山)현 남부 구시모토초(串本町)의 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첫 민간 개발 로켓 ‘카이로스’ 1호기가 발사 수초 후 폭발했다. 오른쪽 위 작은 사진은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여기 들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INVITATION TO LEXUS SALES EVENT
4월 1일 종료

RX 500h RZ LUXURY* NX 450h*

기억해 두셔야 할 초대
짜릿한 퍼포먼스와 탁월한 성능,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Lexus를 Lexus답게 하는지 발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EXUS EXPERIENCE AMAZING
lexus.com | #Lexus

*한정 수량. 자세한 사항은 선호하시는 Lexus 딜러에 문의하세요. ©2024 Lexus, Toyota Motor Sales, U.S.A., Inc의 부서

정권심판론 다시 틀라... 여당 내 “이종섭 임명철회 건의를”

(호주대사)

범야권 “이종섭 해외도피 출국” 공격 국민 34% “정권 견제” 응답률 높아 당내선 “이대로면 비례 포함 120석” 조수연 막말 논란... “과감히 잘라야”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견제론이 꿈틀거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재부상한 데 따른 여론 악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는 여권에 불리한 흐름이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1%, 양당 모두를 견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9%였다(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9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에선 총선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제 입에서 몇 석이 목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11일)이라며 줄곧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례대표 의석 포함 120석 획득이 현실적 목표”라고 전했다. 정권 심판 여론이 재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선 최소 135석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던 게 일반적 견해였다.

여당 내부에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약재로 꼽는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



이상민 만난 인요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출마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이 의원과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야권의 정권 심판 공세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 공천 잡음에 실망

한 야권 지지층의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출구를 정부가 만들어준 셈”이라며 “비명횡사 등 민주당 공천과동의 반사이익을 노리다 역공을 당한 형국”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부상까지 맞물리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조명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줄곧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강조해 왔다.

여당 총선 전략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 중도확장성을 우선 고려했다는 중앙선대위에 수도권 인사가 전진 배치됐다. 특히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가 집단 비토했던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럼에도 당이 정부와 적극 차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있다. 고위 당직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기경·전민구·이창훈 기자

“검찰 맞선 민형배” “상식적인 이낙연”... 호남 민심 드러난다

총선 핫플레이스 | 광주광산을

호남 최대 격전지... 후보 반감도 커 “민, 이재명 꿈무니 쫓더니 공천” “이, 탈당하고 분위기만 어지럽혀”

“이재명이 꿈무니만 솔찬히(상당히) 쫓아댈기더니 혼자 떡 하니 공천장 받더니.”(회사원 김모씨·44세)

“그 양반은 뒤도 안 보고 민주당 떠나더니 뭐덜라고(뭐하려고) 여기 나온대요?”(택시기사 장준호씨·60세)

광주 광산읍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 등지를 뜬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상대는 지역구 현역 초선인 민형배 민주당 후보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그 민주당을 이탈한 제3지대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장(戰場)으로 꼽힌다.

12일 만난 광산을 유권자 중에선 상대 후보에게 격양된 이들이 많았고, 때로는 적개심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모(57)씨는 민 후보에 대해 “까놓고 말해 민 후보가 의원 되고 발전은커녕 민주당에 발목 잡혔다”며 “이 풀인데도 민주당이면 좋다고 찍어주니까 여기가 집토끼인 줄 안다”고 비판했다. 40대 택시기사 강모씨는 “그 양반 ‘처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읍 후보가 지난 12일 광산구 첨단월봉로-북문재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운데)가 이날 전주이씨 광주전남총친회관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회’잖아. 나는 민주당은 뽑아도 처럼화라면 아주 질색을 한다”며 손사래를 쳤다. 처럼화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인이다.

이 후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았다. 하남동 주민 김영신(74)씨는 “당이 뽕뽕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당 깨고 나가서 분위기만 어지럽게 땡글고”라며 “이준석이란 그럭저럭(그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걸 보는 데 아주 기가 차서...”라고 했다. 지난달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쳤다가 11일 만에 갈라섰다. 박모(52)씨는 “금배지는 영광에서 달고, 도지사는 전남에서 한 사람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운데)가 이날 전주이씨 광주전남총친회관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건 기자

이 강제기(갑자기) 광주에는 뭘 일아래요?”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럽게 ‘내 편’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70대 김모씨는 “광산구청장부터 착실하게 올라간 민 후보는 과거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민주당을 지켰다”며 “이번에 이낙연까지 꺾고 재선하면 그야말로 광산구의 자랑”이라고 추켜세웠다. 박모(52)씨는 “검사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데 민 후보는 당적까지 걸면서 온몸으로 싸웠다”고 옹호했다.

광주=손국희·박건 기자

여당 비례 8명 제명 후 위성정당으로 의원 쫓주기 ‘꿈수’ 일상화

국민의힘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4·10 총선을 위한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투표지 상단에 위치시키기 위한 정치작업이다. 제명된 의원 8명은 15일 열린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위성정당에 입당한다. 정당 기호가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이런 식의 의원 쫓주기는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윤리위원회 전주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명단은 15일 열린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며 “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발전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이라 명단과 제명 사유 등을 발표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리위 의결 직후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규·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앞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14일) 비례대표 면접 인터뷰를 통과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민구 기자

워싱턴 날씨 (°F)

15일(금)	72~49	18일(월)	51~36
16일(토)	66~50	19일(화)	48~34
17일(일)	67~43	20일(수)	55~36

3월 14일(목) 78~6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MATCHINGPOINT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북VA에서 4인 가족 편히 살려면 “연 32만불 벌어야”

〈알링턴 기준〉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4인 가족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간 32만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금융 전문 웹사이트 스마트에셋에 따르면 알링턴에서 ‘지속 가능한 안락함’을 영위하려면 4인 가구(성인2명+자녀2명)가 필요한 연소득은 31만8573달러였다. 시급 기준으로 57달러이며 독신의 경우엔 연소득 11만681달러가 있어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스마트에셋’은 알링턴에 거주하는 이들의 연방 공무원 비중이 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것(25세 이상 거주민 중 76%가 적어도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함)이 중위 소득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간 소득이 요구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4만 달러에 가까운 33만9123달러나 필요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상위 10개 도시에서 5곳이나 포함됐다. 두 번째로 많은 소득이 요구된 도시는 산호



세(33만4547달러)였으며 31만9738달러의 매사추세츠 보스턴과 31만8573달러의 버지니아 알링턴이 그 뒤를 따랐다.

뉴욕은 31만8406달러로 5위권에 들었다. 이외 북가주 오클랜드(31만6243달러)와 하와이 호놀룰루(29만9520달러)가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남가주의 어바인과 샌타애나는 29만1450달러로 공동 8위에 랭크됐고 오리건 포틀랜드가 28만9786달러로 10위를 차지했다.

독신을 기준으로 보면, 뉴욕이 가장 많은 연소득(13만8570달러)이 필요했으며 산호세, 어바인,

샌타애나 순이었다. 샌디에이고와 출라비스타의 경우엔 독신이 연간 12만2803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문제는 안락한 삶을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커리어 전문 웹사이트 지피아(Zippia)의 지난해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 꼴도 안되는 18%만이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가구 중 34%만이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개인 금융 전문가 사이러스 푸르넬은 “(실상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대다수가 ‘지속 가능한 안락함(sustainable comfort)’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자가 부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섯 자리 소득에 도달하면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는 통념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스마트에셋이 국내 주요 도시 99곳에서 거주자가 ‘지속 가능한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업체는 이를 위해 가용 소득 산출 기준으로 주택, 식료품 등 생계에 필수적인 부분에 소득의 50%, 오락 및 취미생활에 30%, 저축 또는 모기지 상환에 20%를 삼았다.

즉, 이상적인 개인 재정의 평가 잣대로 여겨지는 ‘50/30/20’ 법칙을 적용한 것이며 이 법칙을 토대로 도시별 주거비용과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고려해 안락한 삶의 조건이 되는 소득을 산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미 기자

“미국서 한글·한자 싸인하면 안되나?”

경찰학교 중국계 졸업생 한자 서명 교체 요구 논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학교 졸업생이 한자로 된 싸인(signature)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료증 교부를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계 수료생 윌슨리씨는 지난 7일(목)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학교 수료식에 사용한 수료증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적은 싸인을 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인 매기 드보드 헌터 타운 경찰국장은 “영어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서명은 용납할 수 없기에 영어 서명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이메일을 발송했다.

드보드 국장은 “우리 경찰업무는 보편적인 영어 플랫폼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은 보편타당한 영어 서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습이자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드보드 경찰국장은 “나의 이같은 요청은 결단코 인종차별이나 편견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헌터타운 경찰국은 다양성을 포용해 왔으며 오히려 격려했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윌슨리 경찰관의 리더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우리는 수료증을 재발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최근 5~6년 동안 경찰학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소수계 인종이었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역사적인 변화를 잘 수용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이나 버지니아 주법 등에 싸인을 영어로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민간 은행 등도 한글과 한자 등 외국어 문자 서명을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MD 정부 총체적 무능 드러내

메릴랜드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고지서를 제때 발송하지 않아 수억달러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

메릴랜드세무국(MDST)은 법률에 의해 3년동안 전체 230만 주택의 순번을 정해 매년 1/3씩 재산세 과세표준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특히 카운티정부 재정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MDST가 10만7천가구의 재산세

고지서를 법률상 통보 기한인 작년 12월말까지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주택 과세표준은 3년전에 비해 26%나 올라있었다.

MDST는 기한 내에 새로운 과세표준을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전 과세표준에 의해 재산세를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손실액이 줄잡아 2억5천만달러에 이르지만, 주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그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의회는 뒤늦게 특별법을 제정해 뒤

늦게라도 수정된 과세표준을 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부의 실수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능하고 안일한 민주당 정부의 공무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코메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주정부와 민주당 의원들만이 이 사실을 공유하며 쉬쉬하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을 더욱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서울고 동문회, 조현동 대사 초청 간담회

서울고등학교 워싱턴동문회(회장 박승영)가 지난 9일,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고 30회 졸업생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해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 흥회경 전회장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말을 전한 조 대사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활약을 격려하며, 국제관계 안에서의 대한민국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에는 5회 졸업 전기택 동문부터 55회 졸업 조영 동문까지 50년 세월을 아우르는 여러세대 동문 40여명이 모여 덕담을 주고받았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VA투표소(코리안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2024. 3. 27.(수) ~ 4. 1.(월), 6일간

MD투표소(메릴랜드한인회 사무실)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2024. 3. 29.(금) ~ 3. 31.(일), 3일간

투표시간: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투표소 준비물: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있는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도 지참 필수 (비자, 영주권증명서,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증 중 하나)

셔틀버스 운행
○ 2024. 3. 30.(토) ~ 3. 31.(일) 2일간
○ East Falls Church역 KISS & RIDE
↔ VA투표소 간
오전 8시~오후 4시 매시 정각
지하철역 출발 (오후 12시 제외)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
매시 30분 투표소 출발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잡코리아USA 구인·구직 서비스 환불 시비

한 한인 업체가 구인·구직 안내 업체의 서비스 불만을 주장했다.

샌디에이고에서 온라인 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제이슨 김씨는 최근 한인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잡코리아USA에 300달러를 내고 이력서 열람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씨는 “잡코리아USA가 한인사회에서 구인·구직 업체로 유명해 300달러를 내고 가입했다”며 “샌디에이고 지역 마케팅 관련 이력서를 검색하니 29명의 이름이 나왔다. 하지만 이력서 내용을 확인하니 가장 최근에 올린 지원자가 5개월 전이었고, 나머지는 등록한 지 1~3년이 된 이력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오래된 이력서일 수도 있어서 업체 측에 300달러를 돌

려달라고 했다. 사전에 등록된 이력서가 오래됐을 수 있다는 공지나 안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잡코리아USA 측은 김씨가 관련 분야 지원자 27명의 이름, 학력 및 경력, 연락처 등이 담긴 이력서 내용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이미 관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를 확인했다”면서 “우리 업체는 정보를 안내할 뿐 일할 직원을 직접 찾아주는 않는다. 고객이 불만이 제기해 채용공고 서비스 등 300달러 상당 크레딧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잡코리아USA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 구인·구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올림픽 노리는 12세 한인 마라토너

LA거주 에번 김 양

오는 17일 LA 마라톤이 열리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벤투라 마라톤을 2시간대에 완주한 12세 한인 소녀 마라토너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LA타임스는 12일 ‘202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12세 소녀’라는 제목으로 어바인에 거주하는 에번 김양을 소개했다. 김양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벤투라 마라톤을 2시간 58분만에 완주해 모든 여성 참가자(여학생 포함) 중 2위를 기록했다. 평균 마일당 7분 속도로 뛴 셈이다.

김양의 트레이너이자 코치는 바로 아버지 마이클 김(49)씨. 김씨 역시 마라토너로, 딸과 함께 벤투라 마라톤에 참가해 2시간 51분에 들어왔지만 오는 12월에 참가할 캘리포니아 국제마라톤 대회에서는 딸이 자신의 기록을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김양의 마라톤 완주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김양은 LA타임스에 “벤투라 마라톤을 20마일 정도 달렸을 때 발에 경련이 났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양은 스스



지난달 25일 열린 벤투라 마라톤에서 여성부 전체 2위를 차지한 에번 김양이 메달을 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에번양 아버지 마이클 김씨 제공]

로 “정신 차려”를 수없이 외치며 멈추지 않고 달렸고 결국 본인이 세운 목표 시간대에 결승선을 끊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양이 마라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 김씨 때문이다.

싱글대인 김씨는 12일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식사 전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자는 생각에 막내(에번)가 4살 때부터 큰아들(콜·17),

큰딸(헤이븐·16)과 함께 넷이서 산책을 시작했다”며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에번은 오빠를 따라서 마라톤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김양의 목표는 나이별 마라톤 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보다 4분만 앞당기면 12세 남녀 마라토너들을 통틀어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된다.

또다른 목표는 2028년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 것이다. 한 예로 2024년 미국 올림픽 마라톤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시간 37분 안에 뛰어야 한다.

로드레이싱통계학회협회에 따르면 여성 마라토너의 1%만이 3시간 안에 마친다. 성별을 불문한 12세 마라토너 기록 중 가장 빠른 건 1986년 대회에서 독일의 육상선수 마누엘 집세가 2분 54분에 완주한 것이다.

김양의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결코 불가능한 건만 아니라 하는 게 아버지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에번이 목표를 세우고 계속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기록을 볼 때 2028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희 기자

뉴욕필과 협연 에스더 유...NYT “우아한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딱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았다. 뉴욕필과 번스타인을 연주할 수 있겠냐고.”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30)는 지난달 8일 뉴욕 필하모닉과 깜짝 데뷔했다. 본래 연주하기로 했던 바이바스크리데가 연주를 취소하면서 그에게 기회가 왔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는 조건이었다. “지난해에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한번 연주해봤던 곡이었다. 그 후로는 연주한 적이 없었다.”



지난달 8일 뉴욕 필하모닉과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사진 뉴욕필]

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전설적 음악가들과 듀오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음악이 정말 잘 살아났다”고 했다.

에스더 유는 한국의 음악적 저력을 보여주는 음악가 중 한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유럽으로 이주했고 벨기에·독일·영국에서 공부했다.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3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4위 등을 수상했고 지휘자 고(故) 로린 마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눈에 띄어 국제무대에 소개됐다. 김호정 기자

이달 초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사랑했던 뉴욕필과 그것도 번스타인을 연주할 기회니까!” 에스더 유는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뉴욕 맨해튼의 스프스 스킨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언젠가는 뉴욕필과 함께 연주하는 꿈을 꿔다”고 했다. 번스타인은 뉴욕필 최초의 미국인 음악 감독으로 12년 동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번스타인 또한 25세에 대타로 뉴욕필 무대에 기습 데뷔한 기록이 있다.

에스더 유는 “번스타인의 전통을 간

고 이두영씨 살해 혐의 청소년 내일 심리...성인범 처벌 결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동안 법원을 오갔어요. 정의실현과 미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용의자가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고 이두영씨가 LA다운타운 자비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재판과 관련, 이씨의 딸 이채린씨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둔 용의자 1명에게 미성년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서 남은 용의자 1명도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로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 범의 심판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은 용의자가 7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다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아버지의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후 이채린씨와 한인사회는 반발했

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은 용의자 1명(당시 17세)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용의자는 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A 카운티검찰이)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홀로 남은 저에게 1년 반 동안 희망만 심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AI, 인류 멸종수준 위협될 수도”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 나왔다.

이 보고서는 AI가 무기화하고 통제력이 상실된다면 세계 안보 위협이 커지므로 미 정부의 개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타임지에 따르면 AI 정책 조언 등을 제공하는 미 민간 업체 글래스톤 AI는 이날 홈페이지에 ‘첨단 AI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247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미 국무부의 의뢰로 작성됐다.

보고서의 골자는 최첨단 AI와 AGI(범용인공지능) 등장은 핵무기 도입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최악의 경우 인류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을 초래해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최첨단 AI와 AGI의 큰 위험 요소로 ‘무기화’와 ‘통제력 상실’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생화학 및 사이버 전쟁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제가 불가능해져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AGI 진화 속도를 재앙적 위협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AGI는 대부분의 작업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공상과학 영화 등에 등장하고 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AI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이내에 AGI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엔트로픽, 엔비디아는 모두 오는 2028년까지 AGI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가 AI 개발에 신속하고 단호

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긴급 규제 안전장치와 새로운 AI 감독 기관을 만들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첨단 AI 반도체 제조와 수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톤 AI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리미 해리스는 CNN에 “AI는 이미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사람들은 AI가 재앙적인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AI 연구를 아예 그만두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의회가 13일(현지시간)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3일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AI법을 통과시켰다.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박소영 기자

“화창한 봄, 칼라스톤으로 아름답게”

고베주얼그룹 반지천국 행사

고베주얼그룹의 반지천국이 한국서 들어온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등 4종 칼라스톤 종류 1천2백세트 판매전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실시한다.

여성들의 인기보석으로 꼽히며 일명 ‘사모님 보석’으로 불리우는 칼라스톤은 자신의 태어난 달과 연관 지어 루비는 열정적인 사랑을, 사파이어는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는 등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따른다는 속설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보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되는 보석들은 단아한 디자인과 최고 수준의 도금으로 세공되어진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를 포함해 홍산호, 가넷, 토파즈 등 찬란한 각종 유색 보석류가 5백불에서 3천불 가격에 판매된다.

버지니아 행사장은 오는 20일



(수)부터 22일(금)까지 한인 커뮤니티센터(6601 Little River Tpk Alexandria VA)에서, 볼티모어는 JJ 골프 숍 특설매장(10045 Baltimore National Pike A12 Ellicott City MD)에서 열린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김윤미 기자

▶ 1면 ‘푸틴’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푸틴 특유의 모호한 레토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 지원해 온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푸틴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대신 핵우산이라는 표현으로 NPT 체제를 시험해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관련 발언에서 볼 수 있듯 30년 집권 시대를 열겠다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외교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다.

2000년 첫 당선 이후 대통령 네 차례, 총리를 한 차례 역임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승리할 경우 임기가 2030년까지로,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29년 독재(1924~53년)보다 통치 기간이 길어진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구축한 체제를 ‘푸틴주의(Putinism)’라고 부르는데,

이는 민족주의, 러시아정교회, 보수주의, 국가자본주의, 미디어 장악 등을 통해 2000년 첫 대선에서 내세운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이번 대선은 후기 푸틴주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며 “푸틴은 2000년 스탈린주의 국가를 부활시켰는데 차이가 있다면 당시엔 반근대적 권위주의를 일부 숨겼지만 이제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백일현·정영교·박현주 기자

통상본부장 “미국, 한국 반도체 보조금 이달 말 발표”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규모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금지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분명히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보조금 규모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



라 개별 기업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나 러문도 상무 장관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6~8주 내 여러 추가 발표가 나올 것”이라며 3월 말 보조금 지급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170여개 반도체 업체들이 600건 이상의 투자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 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도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다만 이미 미국 인텔이 오하이오 공

장 건설과 관련 100억 달러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시설 건설에 배정된 지원금 규모는 총 390억 달러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의 TSMC가 50억 달러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TSMC의 투자금은 4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지원 규모에 대해 미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따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하원, 틱톡금지법안 초고속 처리

하원이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 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 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 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의 결정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만 상원에서 법

안이 통과할 수 있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천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며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조지아 법원, 트럼프 혐의 중 일부 기각

공직자 강요 등 6개 혐의 기각
나머지 혐의는 계속 유지

조지아주 법원은 13일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킷 맥아피(사진)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 공직자들에게 친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맥아피 판사는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겨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맥아피 판사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오는 15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션 웨이드 특별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쟁 한복판에 선 로버트 허 "청문회 승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유출·불법보관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로 대선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게 정쟁의 중심에 선 한국계 로버트 허(51·사진) 전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허 전 특검은 푸른색 양복과 라벤더 색 넥타이 차림으로 12일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증인용 테이블 가운데에 홀로 앉은 그는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의원들이 서로 '정반대의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증언에 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허 전 특검은 의원들 앞에서 비판자들을 달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NYT는 허 전 특검의 이날 의회 답변 태도를



놓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려 했고, 정밀했다"고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당파적 공격이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가 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을 불기소한 건 잘못이란 공화당 측의 비판도 잘 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메릴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특검에 임명된 뒤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

난달 8일 수사 보고서를 발표한 허 전 특검은 이날 "당파적인 정치는 내 업무의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회의적인 배심원단 앞에 선 배태량 검사를 연상시키는 느긋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스스로를 변호했고, 단조롭고 사무적인 그의 말투는 여야로 나뉘어 공방을 주고받는 하원 법사위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NYT는 짚었다.

한 보수진영 소속 의원은 허 전 특검이 공화당원이란 점을 무시한 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엘리트층을 지키는 '근위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으나, 허 전 특검의 이런 태도를 흔들지는 못했다.

NYT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당국자로 활동했던 허 전 특검의 전직장동료들은 그가 스트레스가 많고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더욱 냉철해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1000억원 벌었다... 비트코인에 웃는 엘살바도르

세계 첫 법정통화 채택한 나라이코인 상승세에 수익률 68%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의 무서운 상승세에 중미 엘살바도르가 '대박'을 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국고를 동원해 이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있는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70%에 육박하는 미실현 매도 이익을 거두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설 웹사이트 나이트트래커를 보면 엘살바도르는 최

근 비트코인 가격의 무서운 상승세에 힘입어 68%대의 잠정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것만 283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엘살바도르의 매도 추정 수익은 8357만 달러에 이른다.

나이브 부켈레(42·사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투자 전략으로 8300만 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법정통화 도입 후 비트코인을 토크가 매수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1억219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올 바이 마이셀프' 가수 에릭 카먼 74세로 별세

팝송 '올 바이 마이셀프(All by Myself)'로 유명한 가수 에릭 카먼(사진·위키피디아)이 세상을 떠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향년 74세.

카먼의 부인 에이미 카먼은 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주말 사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록 가수 카먼이 1970년대 파워 팝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밴드 '라즈베리스(Raspberries)'를 이끌었고



솔로 가수로도 성공했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 결성된 라즈베리스는 1972년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고 올 더 웨이(Go All The Way)'로 사랑을 받았다.

라즈베리스가 같은 해 발표한 두 번째 앨범 '프레시(Fresh)'는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앨범에서는 '아이 워너 비 워드

유(I Wanna Be with You)', '렛츠 프리텐드(Let's Pretend)'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각각 16위와 35위에 오르며 히트했다.

라즈베리스가 1975년 해체된 뒤 솔로 활동에 나선 카먼은 파워 발라드로 변화를 시도했다.

카먼이 1975년 발표한 첫 솔로 앨범에 수록된 '올 바이 마이셀프'는 빌보드 핫100에서 2위까지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노래는 켈리 디용 등 여러 가수에 의해 다시 불렸으며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에 등장하기도 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Ktown

3/14 - 3/21, 2024



NEW PRODUCT!

K TOWN PEANUT

케이타운 피넛

ALL VARIETIES/4.23-10.58 OZ

~~Reg. \$3.99~~

2\$6
FOR

Dr.Chung's Food

3/14 - 3/21, 2024

Black Bean Soymilk

베지밀 검은콩두유

~~Reg. \$17.99~~

\$13.99
BOX



치약칫솔세트 무료증정

FREE

TRAVEL KIT

6.4 FL OZ X **24 EA**
SPECIAL GIFT BOX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가나안 교인’ 3명 중 1명... “다시 교회가고 싶다”

<19~34세 청년층>

목회데이터연구소 보고서

수년 전부터 한인 교계에서는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가나안’은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일컫는 용어다. 특히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는 24%다. 이 연구에서 청년은 19~34세 사이의 성인을 뜻한다. 즉, 교계의 허리 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최근 ‘가나안 청년의 삶과 신앙’에 대해 조사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파악은 교계 사역의 방향성과 전략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갈수록 젊은층과 허리세대인 청년이 줄어드는 한인 교계에도 오늘날 가나안 성도에 대한 현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회 내에서는 갈수록 허리세대인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이들이 많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먼저 청년층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부터 공개했다.

근거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따르면 가나안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4세(27%)였다.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30대 초중반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25~29세(25%), 19~24세(20%) 순이다.

청년층 가나안 성도들은 최근에 교회를 이탈한 게 아니다. 오래됐다.

먼저, 가나안 성도들은 유년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온 부류다. 가나안 청년 성도들에게 언제 신앙을 갖게 됐는지 묻는 결과 모태 신앙(44%), 초등학교(28%) 등 대부분 유년 시절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다. 반면, 교회를 떠난 시기는 대학교 졸업 후(42%), 대학교 재학중(31%) 등 대부분이 대학교 이후 교회를 이탈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주 한인교계도 마찬가지다.

한인 2세 사역을 하는 필립 이 목사는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향수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며 “대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할

“
대부분 유년시절 때 교회 다녀
대학교 때 교회 떠나기로 결심

“매주 교회 가는 것 부담된다”
그래도 가족 있어 신앙 유지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엇갈려
위로해주지만 배타적, 물질적

수 있는 입장이 되면서 평소 자신의 신앙에 대해 회의감 등을 느끼며 제도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가나안 청년 성도들은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39%)’고 답했다. 이어 ‘신앙에 회의가 생겨서(12%)’ ‘재미가 없어서·교인들의 말

과 행동이 달라서(각각 11%)’ ‘사회 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4%)’ 등을 꼽았다.

가나안 청년들은 대부분 신앙적 의식이 약했다. 이를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기독교 입문 중 ▶그리스도 인지 중 ▶그리스도 친밀 중 ▶그리스도 중심중 등 4가지의 보기를 제시했다.

가나안 청년 10명 중 7명은 자신을 ‘기독교 입문 중’이라고 답했다. 기독교 입문 층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꼽히는 ‘구원의 확신’ 역시 약했다. 가나안 청년 응답자의 28%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청년 중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8%로 나타났다. 교회 출석 여부가 신앙 또는 믿음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가나안 청년 10명 중 3명은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가족은 크리스천이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결 장치이자 안전망인 셈”이라고 전했다.

교회를 이탈했어도 신앙 생활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은 역시 가족이었다.

신앙 성장에 있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가나안 청년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디어(21%), 성경 묵상(13%) 등의 순이다.

가나안 청년 중 일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안 청년의 33%는 교회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 교회 재출석 의향은 여성(31%)보다는 남성(37%)이, 30대(32%)보다는 20대(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가나안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다.

먼저, 교회에 대한 긍정 이미지는 65%로 교회에 출석중인 청년들의 긍정적 응답 비율(80%)보다는 낮았다. 가나안 청년들은 교회가 ‘사람을 위로하는 곳(41%)’이라고 답했다. 이어 ‘편향 혹은 배타적·권위적(각각 10%)’, 세상과 다른·신뢰가 되지 않는(각각 8%), 사회를 통합하는·물질적인(각각 7%) 등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도 엇갈렸다.

가나안 청년들은 목회자에 대해 경건한(17%), 존경받는(15%) 이미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위적인(15%), 위선적인(13%), 배후는(10%), 위로하는(9%), 친절함·탐욕적인(각각 8%) 등의 순이다.

과거 교회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나안 청년들은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위로와 포용적 태도(50%)’ ‘청년의 사회적 현실 이해(48%)’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 제시(40%)’ 등을 했어야 한다고 꼽았다.

또,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가나안 청년과 교회 출석 청년의 인식을 조사했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답한 가나안 청년(76%)이 교회 출석 청년(64%)의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가나안 청년은 이혼, 낙태,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등 각종 윤리 문제 의식이 비기독교인과 대체로 비슷했다”며 “가나안 청년의 경우 4명 중 3명꼴로 ‘돈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꼽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보다 돈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영기 자

등불 아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남가주 지역의 산들이 눈으로 덮였다.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목련은 꽃을 피웠다. 올해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도 봄은 소매를 붙잡는 겨울을 뿌리치고 오지 않는다. 봄은 겨울의 손을 잡고 온다. 단단해진 땅도 양상해진 가지들도 모두 잡고 온다. 차가운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고통과 함께 활활한 봄은 온다. 봄은 행복하다.

지치고 매마른 양상한 가지를 품었기에 봄은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 아픈 가시가 돋아나 자신마저도 찌르는 우리를 뿌리치지 않고 가슴에 안

아 파스한 싹을 틔운 우리의 봄이 있다. 이 봄은 아픈 우리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봄이다. 행복한 봄, 행복한 사람, 예수님이다.

운동주의 시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하나님이다. 이 행복한 아들로 아버지는 행복한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가시가 돋아난 우리를 안으셨기에 행복하시다. 성령님은 양상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기에 행복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바늘도

꽃하지 않는 단단한 내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에 괴롭지만 행복한 하나님이다.

겨울을 뿌리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모두 받으시며 행복하실 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품으셨다. 존귀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품으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의를, 그의 모든 지혜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행복을 가졌으니 말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기에 아프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기에 힘들다. 무례하지 않아야 하기에 고통이고, 시간의 터널을 버텨야 하기에 고독하다. 무시당하기도 하

기에 억울하다.

그래도 우리는 겨울을 뿌리치지 않는다. 아파하는 가지들을 예수님과 함께 품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 지르는 추운 가지들을 싸맨다. 끝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길 것 같다. 불의는 배부르고, 거짓은 침침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그 길을 간다. 자신에게 말해준다. 그래, 행복하게 가자.

우리 안에 행복한 하나님이 계신다. 홀로 계시셔가 아니라 우리를 품으셔서 행복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주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신 33:29).”

한성문 목사·LA 나성남교회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UMEKEN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5대 소화효소 함유

- 지방 분해 리파아제
-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대중 투자 감소, 인재 유출… 중국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 인대와 정협회의)가 11일 폐막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예상대로 5% 전후가 제시됐지만, 31년간 지속한 총리 기자회견이 사라지는 등 뜻밖의 변화도 나타났다. 한중비전포럼은 11일 서울 HSBC 빌딩에서 ‘2024 중국 양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모임을 갖고 올해 양회가 주는 함의를 살폈다.

대만 관련 ‘평화통일’ 키워드 사라져

▶이희옥(사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발제)=총리 기자회견의 폐지는 리창 총리의 권한과 역할은 축소된 반면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리창 총리와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EPA=연합뉴스]

력집중은 한층 더 강화된 걸 뜻한다. 국무원은 이제 정책 해석자에서 정책 집행자로 변했다. 관심을 끈 외교부장 교체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리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졌다. 5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의 독립주의 세력의 기를 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창은 또 지난해 중국이 “중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밝히며 2023년 중국경제가 위기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올해 5% 성장 제시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직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 강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강국이 돼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중 관계의 위상과 관련,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상호호혜, 상호존중, 공동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중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시 주석 자리에 놓인 두 개의 찾잔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 사회)=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걸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혼란이나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한국은 물론 북한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남북 채널이 닫혀 있는 시기라 한반도 위기 관련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올해 양회는 많은 걸 시사한다. 참석자마다 하나의 찾잔이

1인 권력 집중은 체제 불안감 탓 두려움 크니 통제 강화로 반응 왕이 한반도 언급, 북한도 겨냥 중국, 21세기판 만로주의 꿈 꾀

놓이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만 두 개의 찾잔이 놓였다. 한중 강화된 시진핑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김재석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중국 이 2020년부터 한어(漢語)를 유일한 교육언어로 채택하는 등 강력한 한화(漢化) 정책을 펴며 따라 조선족의 소수민족 정체성은 거의 붕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지역 관광산업을 독려하자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에선 조선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며 조선족 전통문화뿐 아니라 K-컬처의 유행 아이템도 관광상품에 이용되고 있다. 조선어 사용은 제한하면서 상품화된 조선족 전통문화를 중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진핑 1인 시대를 맞아 시 주석의 능력과 비전이 중요해져, 정책을 보면 상당히 모호하다. 문제를 풀 해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시진핑 시대에 범람하는 신(新)이란 수식은 내용은 없고 의미만 있을 때 쓰는 정치적 언어다. 왜 1인에 권력이 집중되나. 체제 불안감과 정권 취약성 때문이다. 두려움이 커지니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의 부정적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두려움의 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혁신적 정책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한중 관계도 교착 국면인데 한국이 급한 마음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중국에 대해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정책 수립을 고민할 때다.

시장 소통 총괄할 총리의 회견 생략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현재 중국의 모든 정책은 시진핑 한 사람이다 결정한다. 중국이 지난 40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1인에게 집중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1인 집중 결정 형태가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체제는 의사 결정에서의 확정성은 있지만 여러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권력 승계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부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중국의 전통적 외교 포맷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엔 대국 외교, 주변국 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매년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중국이 글로벌 구상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구상은 결국 중국의 발전권 확보를 위한 외교, 체제 정당성과 안정 확보를 위한 외교에 중점이 놓인다. 발전권 확보를 위한 외교는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인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small yard, high fence)’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관련

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기술 자강, 외부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국은 현재 민간투자의 위축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는 시장의 신뢰 상실을 반영한다. 사실 시진핑의 새로운 정책 지향과 현실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고 이게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손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안팎에서 모두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때부터 반성과 전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진속은(以進促穩)’처럼 성장을 통해 안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며 다시 성장에 방점을 찍는 방침이 등장 중이다. 중국 당국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민간투자를 늘리려 한다. 결국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정작 이를 총괄할 총리의 기자회견은 이번엔 폐지되고 말았다.

아시아에서 배타적 영향력 행사 원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올해 중국이 무얼 하려는지는 정부업무보고의 키워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올해 늘어난 건 ‘고품질’과 ‘혁신’이고, 줄어든 건 ‘고용’과 ‘성장’, 그리고 ‘개혁’이다. 성장률 등 여러 수치가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 고용지표는 지난해 1200만 명 ‘좌우’에서 올해는 ‘이상’으로 바뀌었다. 또 ‘GDP 5% 좌우’ 성장 목표는 최선이 아니라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한다. 양회에서 중요한 건 예산인데, GDP 성장률보다 유일하게 높은 두 항목이 R&D(6.6%)와 국방비(7.2%)라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미국은 1823년 먼로 독트린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실행할 힘은 없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두 세기 전 미국과는 달리 경제력과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다. 21세기의 중국판 먼로 독트린을 꿈꿀 수 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2022년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려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고 했다. 대만 침공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국, 일본과 협력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 강국이자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의 소통·협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통합·조율된 대중 정책 있어야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공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한중 관계는 한 없이 나빠졌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멀어지고 통일 전망도 어두워질 것이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한다. 물론 대화를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 정책은 큰 대중 정책인데, 대미·대일 정책과 한류 등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통합되고 조율된 정책을 갖고 중국과 대화를 해야 하고, 종합적인 한국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사장=중국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로 보인다. 중국에서 자본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FDI)와 방문객이 감소하는 것 등은 모두 중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결과로 여겨진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중국 정부로서 나라 안팎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반도체는 미국의 견제로 중국이 따라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기차는 중국이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 미국과 자유주의 우방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미국의 견제가 중국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그리고 이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국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정리=사공관속,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감사 세무랑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판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채용 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알프스의 감동 스위스 일주

8박 9일
 6/18~6/26일
 \$3,990
 +항공



방문지

취리히 도착-샤프하우젠-베른-로잔-몽트뢰(시옹성)-제네바-샤모니(몽블랑)-로이커바트-체르마트(마테호른)-인터라켄(웅프라우)-루체른-취리히 출발

특전

1. 전일정 럭셔리 호텔 숙박
2. 스위스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을 아우르는 핵심 일정
 - 레만 호수변의 휴양도시 몽트뢰와 시옹성
 - 샤모니 마을과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 산간 마을 체르마트와 마테호른
 - 인터라켄과 유럽의 지붕 웅프라우
 - 루체른 호수와 카펠교
 - 스위스의 대표적인 대도시 베른, 로잔, 제네바 시내관광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레나고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 9/17~9/25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9박 10일 요금문의
-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사내선) \$3980+항공
-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4/16 ~ 4/26
 2차 6/18 ~ 6/28
 3차 9/17 ~ 9/27

4차 10/15 ~ 10/25
 5차 10/22 ~ 11/1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경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리한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셀렉트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10박 11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기천대검병원

토요 특선 당일 투어

통우드가든 3월16일 \$95
 필라델피아 4월 6일 \$95
 네츄럴 브릿지 5월 4일 \$95
 레오보스 비치 6월22일 \$85

워싱턴 벚꽃길 도보여행 \$89 (4인이상 수시 출발)
 낭만의 벚꽃 런치 크루즈 3월 29일, \$189

성극 **대니얼** \$199
 5/16, 5/30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일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천성
 몬트리올/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해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 **일출발**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미동부 베스트셀러 **일출발**
뉴욕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뉴욕 **일출발**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미서부 일주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캐나다 록키 4박5일 \$1090+항공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다낭** \$4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폴** \$790+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지방발 부동산 한파... 올 건설업체 844곳 폐업

고금리속 PF 막히고 미분양 급증
건설사·하도급 폐업 10년래 최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침체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며 건설·부동산업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 현장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 맥경화'가 심해지며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부터 건설사(시공사), 하도급업체 등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13일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이곳에서 석 달간 건설 인부들 점심밥을 지어줬다는 함바집 아주머니는 "외상값 5000만원이 밀렸는데 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함바집은 건설 현장에 지어 놓은 간이식당이다. 통상 공사를 진행하는 여러 하도급 업체가 각축해 함바집에 인부들 밥값을 건네는데, 이 업체들도 공사를 총괄하는 건설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인부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건설사는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방의 유력 건설사가 쓰러지는가 하면 건설업 임금 체불도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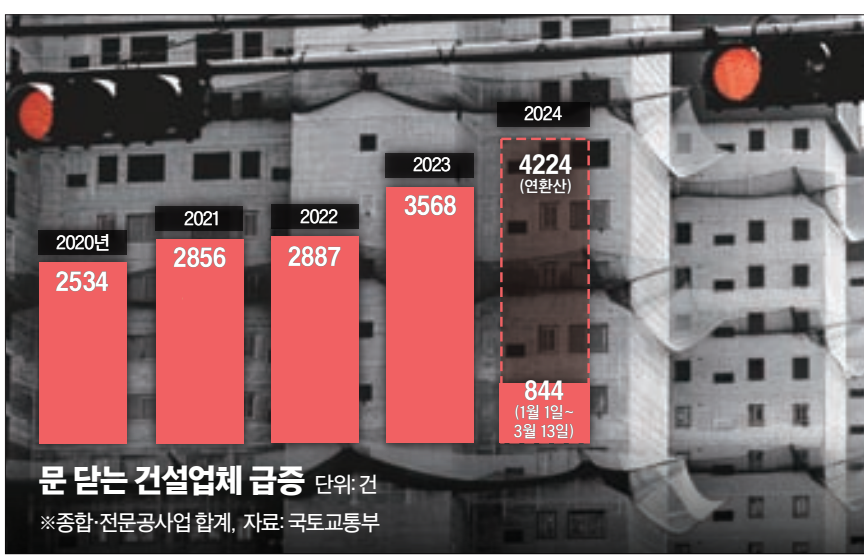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건설사(종합·전문) 폐업 신고 건수는 844건(1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

은 기간(751건)보다 11%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 처리된 지방 건설사도 올해 들어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월(3곳) 대비 배로 늘었다.

경남 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3년 전 부동산 호황기 때 비싸게 땅을 사서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하필 금리가 치솟고 물가가 뛰는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쓰러지면 결국 하도급 업체까지 부실이 이어진다"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건설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사업은 크게 시행사가 토지 매입부터 시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건설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하도급 업체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비용 대부분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데 이게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고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금융회사도 사업 리스크가 커지면 만기 연장을 꺼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전국 미분양(6만 3755가구, 1월 기준)의 약 85%(5만 3595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을



떠안은 지방 중소 건설사에서 부도·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건설업 불황 속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건설업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만 700명으로 지난해 11월 1만 600명, 12월 1만 2700명에 이어 증가 추세다.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총 4363억원으로 1년 새 49% 급증한 탓이다. 신규 취업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국내 부동산 신착사 14곳의 지난해 연간 당기 순이익도 24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가량 급감했다.

또 다른 서민업종인 부동산 중개업

소도 울상이다. 휴·폐업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매달 1000여 건씩 나오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폐업 업소는 1177곳, 휴업 업소는 127곳으로 신규 중개업소(1117곳)를 넘었다. 1월 기준으로 폐업 업소가 신규를 뛰어넘은 것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개업 업소 수도 2018년(2250곳)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통상 봄 이사철 직전으로 거래가 많은 1월에 폐업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10년간 일하면서 올해가 가장 힘들다"며 "고금리에 전월세만 찾고 매매가 폭 뛰거나 수입도 반 토막"이라고 말

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직원 4명이 올해 전월세 거래 10건 밖에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나비효과'다.

건설업은 부가가치 335조 818억원(2022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를 차지한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2023년)에 달한다.

내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건설 경기가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예산의 65%인 12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업계의 현재 상황은 올 상반기가 피크일 것 같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우량한 중·중소건설사라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건설 경기가 단박에 좋아지긴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건설업 침체가 2~3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차체에 건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비중을 낮추고 기업 자체의 자생 능력을 키우는 식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장소진 인턴기자

건설사, 탈주택 러시... 중동·에너지사업으로 눈 돌린다

현대건설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중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올해 마수 끝에 주택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해외 수주가 더 빨랐다.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년째 연

계 1위인 현대건설이 3월이 넘어야 올해 첫 국내 주택사업 수주 소식을 알린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원전모듈(SMR) 등 에너지 사업 확대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高)부가가치 해외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 수주액을 28조 99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2조

4913억원)보다 낮춰 잡은 가운데, 전체 목표치의 41%가량(11조 8010억원)을 해외 사업을 통해 달성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전통의 먹거리'인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인 A사는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미분양 등에 대한 우려와 공사비 급등 등을 겪으면서 국내 주택 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은 3조 2656억원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18년(3조 2612억원) 이후 가장 적다.

대신 건설사들은 해외수주·신사업·비주택 등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10대 건설사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과 해외 사업에서 각각 20조 406억원, 262억 5897만 달러(약 34조 5437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국내 정비사업은 46.9% 급감했지만, 해외 수주는 19.2% 늘어났다. 신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환경·에너지사업 매출액 비중이 35%까지 늘었다.

김원 기자

"강제노동 금지 위배"...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에 서한 발송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대전협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은 "2015년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제 노역

금지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이다. 이탈률은 92.9%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지혜 기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100% SATISFACTION GUARANTEED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액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연년대일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3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강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는 **체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물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원시 사이즈 \$1,199
싱글 사이즈 \$899

황토세라믹을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버지니아 워싱턴 워던 지정 대리점

월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핑 가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발열판 히터 장착

\$5,800

\$3,500 백백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물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0cm 거기를 채우고 피톤치드 흡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큐**

물속까지 시원한 수직 수압 마사지

발목 펌프 자동운동기

발목 펌프 자동운동기

발목 펌프 자동운동기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벽백함 눈곱-이물감 부연시아 눈부심-중립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아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라이프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용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월 매트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종료/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정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 온수매트

조국당 바람 불자, 개딸 “망했으면”...야권 지지층 키보드 내전

(이재명 강성 지지자)

조국혁신당 예상밖 높은 지지율에 개딸 “비례도 민주연합에 투표할” 조국 지지자 “장관님만 보면 눈물”

예상 밖의 조국혁신당 바람에 야권 지지층이 분열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언선이 되겠다”며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주장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층은 솔렁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몰빵’(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을 부르짖는다.

한국갤럽의 무선전화면접 비례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지난 5~7일)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15%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37%),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25%)에 이은 3위다. KBS-한국리서치 무선전화면접 조사(7~9일)에선 국민의미래 32%, 조국혁신당 17%, 민주당 1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디자이너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에는 “조국당 x같이 망했으면. 그냥 3심 유죄 맞고 쫓겨나 치르시길” “조국 똥동이로 x 때리기 운동 3일 차” 등 적개심 가득한 글이 다수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마을’ 회원들은 조 대표를 ‘조*’ ‘조x’ ‘zj’ 등으로 지칭하면서 “zj신당 만든 사람들이 이재명 악마화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 대표가 12일 유튜브 채널에 빵 사진 가득한 영상을 올리자 한 회원은 “공식적으로 몰빵 올라왔다. 이장님이 대표 지지자라면 응당 몰빵”이라고 반응했다.

재명이네마을 한 회원은 ‘조국 지지율 급등→징역형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이재명 대안으로 부상’ 등 단계별 구상이 담긴 기사를 올렸다. 다른 지지자들은 “예상대로” 등의 댓글로 공감했다. “조o당 비난 글 자체해 달라”는 글에는 “먼저 선 넘은 게 누구냐” “zj은 수박 2중대다” 같은 반박이 달렸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조 대표를 추앙하는 분위기다. 친야반명(親野反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총리(앞줄 왼쪽부터)가 13일 인천 서갑 김교흥 후보 사무소에서 엄지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명) 성향 커뮤니티인 82쪽에는 “시대정신이 그를 정치로 끌어들었다” “조국 장관님만 보면 눈물이 난다” “조국 그대를 믿노라” “비례는 조국” 등의 글이 쏟아졌다. 판지일보와 클리앙 등 커뮤니티도 비슷한 분위기다. 차기 지도자를 둘러싼 지지층의 아귀 싸움이 앞당

겨진 느낌이다. 한편 조 대표의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용민TV’에 출연해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한 번 얻어 타본 적이 있었다”며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

례”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봉도사가 제주도에 식구들과 여행을 가면 공식 출장도 아닌데도 신분증 내고 티켓팅 때가 되면 공항이 시골시골해지면서 (의전이) 막 나온다”며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 ‘아 국회의원이라 이런 게 있었구나’ 처음 느끼신 것”이라고 했다.

친명 인사인 정 전 의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본선 후보가 됐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거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이라고 한 말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 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모든 후보와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 1면 ‘제3시대’에서 이어집니다

거대 양당 후보가 박빙인 수도권 접전지에서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또는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승패와 직결될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기준 전국 254개 선거구 중 3자 구도가 된 곳은 62개다.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구도는 50개, ‘국민의힘·민주당·새로운미래’ 구도는 12개다.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후보를 낸 곳은 광주 북을뿐이다. 새로운미래는 조만간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과 전병헌(서울 동작갑), 신경민 전 의원을 공천할 예정이다. 무소속으로 나설 설현(경기 부천을) 의원까지 더하면 3자 구도의

선거구는 66개에 이른다. ‘70~80명 지역구 공천’이라는 두 당의 공언이 현실화된다면 이론적으로 전체 절반인 120여 개 선거구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제3시대라는 건 공통분모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개혁신당은 ‘반윤·반명’을 기치로 내걸면서 수도권 중도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허은아 전 의원을 서울 영등포구에 공천하면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구(舊)정치세력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경

쟁한다.

개혁신당 소속으로 본인의 지역구에 나선 조응천(경기 남양주갑)·이원욱(경기 화성정) 의원 역시 3자 구도 아래 동시심판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구인 평균 연령 30대인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정민(국민의힘) 전 삼성전자 연구원, 공영운(민주당) 전 현대차 사장과 3자 구도다. 이 대표는 화성에서 한정민(국민의힘) 전 삼성전자 연구원과 공영운(민주당) 전 현대차 사장과 3자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러 관계자는 “거대 양당 심판론을 키우기 위해 양당에 비판적인 2030세대가 많은 지역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견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에 후보를 내 민주당 표를 잠식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에 반발해 등돌린 민주당 지지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홍영표 새로운미래 의원은 13일 자신이 4선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당화돼 당 대표 지킴이에 매몰된 민주당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지역 민주당 후보는 친명계 박선원 전 국회의원 1차장, 국민의힘 후보는 이현웅 전 당협위원장이다.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는 “인천 부평을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과 인접해 있어 홍 의원의 득표율이 계양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친명계 김병기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탈당파 동병헌 전 의원의 공략법도 비슷하다. 동작갑은 4년 전 김병기 의원이 과반을 득표(55.3%)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다만 일각에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표방지 심리 등으로 표심이 양당에 쏠리는 탓에 제3시대 후보의 기세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기존 정당과 다른 어젠다로 독자성을 확보해야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효성·장세운 기자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출범...“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

“의협, 중재안 들고 국민 설득해야 정부는 2000명 못박지 말고 협상을”

서울대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카드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3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비대위는 전날(12일) 오후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방재승(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의대 교수들은 회의 직후에 “오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 의사를 물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법조치가 현실화하면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의 진짜 붕괴가 올 것”이라며 정부에 복귀 협상 자리 마련을 요청했

다. 배우경(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교수가 제자를 지키는 일은 당연하고,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제자들이 필요하다”며 “이들 없이 환자를 지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집단사직할 경우 시점은 오는 18일 이후가 유력하다. 의협을 요구한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처음 낸 게 지난 달 18일이라, 꼭 한 달 후 시점을 사직서

제출 시기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고 후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다만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수리할 가능성은 작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1000명이라도 (증원)하자면 논의에 나설지 묻는 중앙일보 취재진에 “저는 그 정도라도 오케이인데, 의협(대한의사협회)은 택(택)도 없고 전공의들은 더 택(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을 향해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

에) 중재안을 들고 국민을 설득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정부에는 “2000명 증원을 못 박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의협과 정부 양측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7개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나 1년 유예 제안은 정부에 백기를 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제자의 집단 의료거부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중증환자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채혜선·남수현·문상혁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계약은 이곳에서

2023

Return

T A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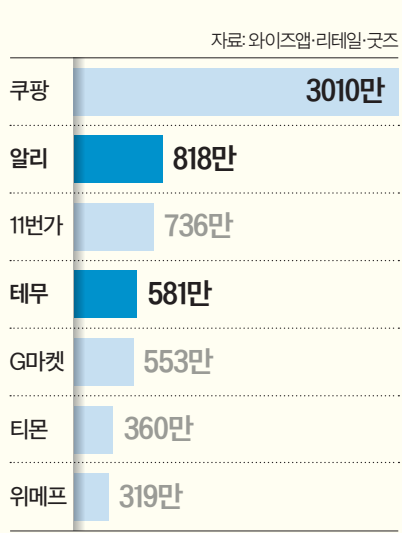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 소비자 피해 똑같이 처벌한다

정부, 한국 플랫폼 역차별 해소
소비자 불만 해외 핫라인 구축
착통·약품·성인용품 단속 강화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 수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 법으로 제재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핫라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통상 피해 금액이 소액인 데다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이 대신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관세청·특허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까지 나선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으로 해외 플랫폼과도 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만 협약 대상이었고, 해외 플랫폼은 빠져 있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엄정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율해 증으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에서 성인용품이 인증 없이도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는 여성가족부가 나선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현재 테무는 국내 법인 없이 해외에 위치한 본사를 통해 영업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접수하더라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세종=정진호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경건설 300억 어음' 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1심 선경건설의 300억원 어음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중현 선대회장에게 건넨 뒤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를 놓고 최 회장 측

과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300

억원 어음의 근거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뒤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6장 중 4장은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나머지 2장은 김 여사가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주정금 완납을 위해 SK그룹 측에 "10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은 (1991년 말) 선경그룹(SK

그룹)의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 출처 의혹은 과거에도 불거진 적 있다. 검찰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의혹을 조사했는데, 최 선대회장은 "개인 돈 조달에 한계가 있어 회사 돈 일부를 끌어다 썼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SK그룹은 2018년 보유하던 SK증

권 지분 10% 전량(매각가 515억원)을 사모펀드 J&W파트너스에 매각했다.

SK와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제공됐다는 주장은 금지조문으로 사실무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는 물론, (이혼소송) 1심 재판 과정에서도 300억원 비자금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용처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전직 대사들 "러시아도 한국 중요성 잘 알아... 원칙 지키며 협력할 공간 찾아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기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석배(69) 전 주러시아 대사과 이양구(65)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전화 인터뷰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짰다.

이석배 전 대사는 "우리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하는 걸 방지해선 안 된다"며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이후 한국 외교가 고난도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러시아·중국 관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석배

이양구

이양구 전 대사는 "러시아는 한국이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열고 생각할 거다"며 "러시아를 적대하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와 국제법 위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

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공간을 찾아야 한다"며 "농업 분야를 비롯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비제재 부문이 꽤 많다. 의미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러 관계와 관련해 이석배 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당장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진 않을 거라 본다"고 예상했다.

이양구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러 연대는 자연스럽게 강화되겠지만, 전쟁이 마무리되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까지 시야를 넓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백일현·임주리 기자

"태국전 매진" 축협 SNS에... "보이콧, 또 나만 진심이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사진)이 대표팀에 재승선한 것을 두고 3월 A매치 보이콧 움직임이 인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경기 입장권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6년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이 전석 매진됐다"며 "축구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양 팀은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9시 30분 4차전을 소화

한다. 앞서 지난 11일 황선홍 대표팀 임시 감독이 해당 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하극상 논란으로 축구계를 뒤흔든 이강인을 포함하자 일각에서는 3월 A매치를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는 "붉은악마의 본질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라며 대표팀에 힘을 실었다.



경찰, 새 학기 스쿨존 집중단속 경찰이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속도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한다. [연합뉴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우리말 바꾸기

‘그치?’는 틀린 표현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하며 되묻는 언어 습관을 지닌 사람이 많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말끝마다 “그지?” “그쵸?” 혹은 “그치?” “그쵸?”를 덧붙이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맞춤법 상 올바른 표현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는 틀린 표현이다. ‘그지’ ‘그치’는 ‘그렇지’를 줄여 쓴 표현이다. ‘그렇지’는 ‘그렇다’를 활용한 표현인데, ‘그렇다’는 ‘그러하다’가 줄어든 말이다.

결국 ‘그러하지-그렇지-그지/그치’가 된 셈인데, ‘그지’는 ‘그렇지’에서 ‘렇’이 통째로 빠진 형태다. ‘그치’는 ‘라’가 빠지고 받침으로 쓰인 ‘ㅎ’과 뒤에 오는 ‘지’가 결합해 거센소리인 ‘치’로 변한 모습이다.

‘그렇다’는 ‘그렇고, 그렇게, 그러니, 그런, 그러면’ 등과 같이 활용된다. ‘그렇다’는 ‘ㅎ불규칙용언’으로, 활용할 때 어간인 ‘그렇-’에서 ‘ㅎ’이 불규칙적으로 탈락하기도 하지만 ‘렇’이 통째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지’나 ‘그치’와 같이 줄여 쓸 수 없다. ‘그쵸’와 ‘그쵸’도 마찬가지다. ‘그러하쵸-그렇쵸-그쵸/그쵸’가 될 수 없다. ‘그렇쵸’가 ‘그쵸’나 ‘그쵸’로 줄여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지/그치’ ‘그쵸/그쵸’는 ‘그렇지’ ‘그렇쵸’로 표기해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 칼럼

‘자유의 방패’ 연습, 잘한 일이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북한이 스스로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하는 핵무기이다. 이번 연습때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 핵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핵무기가 사용되기 이전 한국이 군사적 또는 정치 외교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다. 엄청난 피해 발생은 물론 사후대책 수립도 쉽지 않다. 핵무기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핵무기로 되갚아 주는 것이 상식인데, 그럴 경우 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사용이 되면, 이후 한국의 선택은 여러 가지로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가 아예 발사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차례 핵실험과 병행하여 무수한 수사적 표현으로 지속돼 왔다. 7차 핵실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여부와 알 수 없다.

김정은과 군부가 어떤 전략과 의도를 지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연구중인 무기, 설계 중인 무

기, 시험 중인 무기, 생산 직전인 무기 등 각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종류와 진행 상태를 상세하게 직접 나열한 바 있다.

특히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과업’을 제시했는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km 사정권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력무기 보유 등이다. 언급된 과업 중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게 없다. 한국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안겨 줄수 있는 위협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군이 직시해야 할 최고의 과업은 북한의 예고없는 도발과 위협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찰위성을 비롯한 여러 감시장비의 중요성은 상황이 전개될수록 더욱 절박하다. 또한 전쟁까지도 달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국제여론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AI와 뉴미디어 등을 활용해 지도자들의 영상과 목소리를 짜깁기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군 지휘관들의 극한적 두뇌싸움,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를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치밀한 지략, 장병들의 정신무장, 무기체계들의 품질과 가동능력 유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11일간 주야 구분 없이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의 건투를 기원한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우연회원국도 이번 연습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J네트웍

중국 총리, 낮춰야 산다



유상철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폐막했다. 지난 31년간 이날은 중국은 물론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양회 폐막 직후 총리가 중국의 국정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총리 기자회견이 1993년부터 매년 열렸기 때문이다. 정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중국 상황에서 이는 매우 귀중한 자리였다. 한테 올해부터 이게 사라졌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는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좁ям’이 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누가 뒤편 안 되기 때문이다. 양회는 원래 총리가 광을 내는 행사다. 개막 정부업무 보고부터 폐막일 기자회견까지 모두 총리가 한다. 개성 넘치는 인사로 총리의 기개를 드러낸다. 총서기-총리 투톱 시스템일 때는 이게 가능했다. 한테 이제 그런 모습은 불경이다. 시진핑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 총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총리는 낮추고 시진핑은 돋보이는 행사로 양회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총리가 답해야 할 내용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침체의 중국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질 게 뻔하다. 한테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할 시진핑 집권 3기 5년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공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삼중전회-三中全會)를 아직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아예 기자회견 자체를 없앤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세 번째는 시진핑 시대 리창 총리의 생존 전략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3기는 상하이방 등 견제 세력이 사라졌다. 이제는 시진핑 파벌, 즉 시자원(翥家軍) 내부의 파벌 싸움이 격렬하게 전개 중이다.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 고위 인사의 갑작스러운 낙마 배경엔 시진핑 사람들 간의 파벌 싸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국 사정에 밝은 이의 전언이다. 겉으로 부패 혐의 운운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대 파벌을 공격하는 고발이 줄을 잇고 있는 게 중국 현실이다.

현재 가장 격렬한 대립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5위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간에 벌어지고 있다. 차이치는 시진핑의 경호를 책임지는 문고리 권력이다. 리창 입장에서 접수를 따는 것도 중요하나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외신도 상대해야 하는 총리 기자회견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럴 바엔 안하는 게 낫다. 총리 기자회견이 사라지게 된 진정한 원인으로 보인다. 존재감이 사라져야 살아남는다. 시진핑 시대를 사는 리창의 처세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눈은 세계를 보라”던 김정은, 베트남서 한국의 힘 봤을까

지난달 29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을 찾았다. 중앙일보와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한-베트남 미래 대화’에 참석한 국내 대학생들의 현장 학습 프로그램중 하나였다. 북한과 미국은 5년 전인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 호텔 별관 1층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메트로폴 호텔은 정상회담 당시 첫날 두 정상이 만찬을 하고, 둘째날 오전엔 담판을 벌였던 장소다.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호텔 측이 별관 1층 벽에 설치한 금색 동판이 눈에 띄었다. “메트로폴 호텔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역사적 장소”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동판의 내용 중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 있었다. 동판에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언급한 표현이 두 곳 있었는데, 모두 북한을 미국보다 앞

세운 것이다. ‘THE DEMOCRATIC PEOPL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또는 DPRK-U.S.A라는 식이다. 두 정상을 지칭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적었다(Chairman Kim Jong Un and President Donald J. Trump). 최근 외교와 경제면에서 친미 행보를 보이는 베트남의 입장을 고려하면 의외였다. 호텔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나는 잘 알지 못한다”였다. 베트남의 외교 전략은 실리와 명분 사이를 오가며 유연성을 발휘하는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다. 베트남이 북한을 앞세운 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의식한 정치적 명분이 아니었을까.

베트남은 1950년 1월 북한과 수교했다. 베트남(당시 북베트남)으로서 북한이 중국, 소련에 이은 세 번째 수교국이다. 한국이 통일 베트남과 1992년 수교를 했으니, 베트남에 북한은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우방국인 셈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이 수 백명의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전문가들을 파견했고, 상당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니 두 나라는 혈맹관계일 수도 있다. 김일성 주석과 베트남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호찌민 주석이 수시로 만나 우의를 다졌고, 북한은 베트남을 동남아 외교의 거점으로 여길 정도였다.

하노이의 한국 바람

이런 정치·외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베트남에서 북한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한국이 북한의 자리를 훨씬 크게 대신하고 있었다. 굳이 한류를 꼽지 않더라도, 각종 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계가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루 90편이 넘는 항공기가 양국을 오가고, 연간 360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을 찾는다.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국민도 연간 55만 명에 이른다. 또 베트남인과 결혼한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은 8만 7000가구, 베트남 내에서도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인 6200명이 각지에 가정을 이뤘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베트남의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베트남의 연간 수출액 18%(2022년 기준, 베트남 통계청)가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하니,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도 있겠다. 북한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은 아예 없고, 인적 교류는 사실상 멈췄다. 이를 보여주듯 서울의 베트남 대사관이나 하노이의 한국대사관 직원은 각각 30명을 넘지만, 하노이와 평양의 북한-베트남 대사관 근무자는 각각 1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2019년 이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는 공식인 상태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과거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인들 대부분이 평양식 어투였지만 최근엔 서울 말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사람 중 은퇴 전후 연령대는 대부분 평양에서 한국어(북한은 조선어)를 배웠지만, 젊은 연령대는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했거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 베트남어의 한국말 어투조차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우방 없는 냉혹한 현실

4년 전 김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느꼈는지 생각해봤다. “자기 땅에 밭을 불리고, 눈은 세계를 보라”거나 “더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던 게 김 위원장 아닌가. 베트남은 그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이후 다음 걸음으로 구상하는 본보기였을지 모른다. 사회주의를 지키면서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이

있으니 말이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 위원장은 어쩌면 삼성이나 미국의 대기업을 평양에 유치해 ‘단번 도약’을 꾀하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그가 택한 길은 ‘쇄국’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물론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건 북한이 올해 초부터 세계 각 지역으로 국제사회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교관의 자녀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한다. 외교관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폐쇄했던 자국 내 대사관을 다시 열고, 국제기구의 대표단을 맞을 움직임도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 1월엔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참석차 정부 대표단을 아프리카 구간으로 보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9월엔 외무성 대표단을 몽골에 파견하는 등 올해 들어 11차례 공식 대표단이 외국을 찾았다. 지난해 15개 이상의 해외 공관을 폐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로 나선 것이다. 이는 외교 노선의 변화이자 ‘김정은식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을 찾았던 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베트남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국을 참고하면 어떨까. 민간인들의 활발한 교류와 경제 협력, 무엇보다 경제 성장만이 돈독한 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난해 14일 북한이 형제의 나라로 꼽으며 최우방 국가로 여겼던 쿠바가 북한보다 50배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과 수교를 선택한 게 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논설위원



메트로폴 호텔에 설치된 북·미 정상회담 안내 표지판. 하노이=정용수 기자

비트코인 광풍, 포모의 기억

(FOMO)

식사 자리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 건 지난해 말 무렵이었다. 2021년 말 이후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화제다. 한동안 사라졌던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기사도 등장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주식을 산 아빠와 비트코인을 산 아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이뤄진다.

이달 11일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개당 1억원을 돌파했다. 원화시장 기준 역대 최고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2배를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등을 이유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넘쳐난다.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수단이라는 등 회의적 시선도 있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처럼 비트코인이 바뀌벌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며 나름의 생태계를 구축한 게 사실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은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꺾임함을 남기는 이유는 2021년의 기억 때문이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 FOMO 등이 결합해 부동산 등 모든 자산 가격이 다락같이 오를 때였다. 치솟는 집값에 20대, 30대는 암호화폐 투자에 달려들었다. 미국의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이 6000% 이상 치솟았다.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생겼고, FOMO에 시달리는 이들이 넘쳐났다.

2021년의 결말은 어땠을까. 2022년 글로벌 금리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1억원을 돌파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압바라온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인상과 함께 투자 광풍은 사그라들었다. 암호화폐의 급등하는 가격에 취해 ‘묻지마 투자’에 나선 이들은 큰 손실을 봤다. 미비한 투자자 보호 제도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FOMO 현상에 대한 기사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빗더미

에 얽은 청년들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도지코인, 페페 코인 등 밈 코인 가격이 들쭉이는 등 ‘묻지마 투자’의 조짐이 재연되고 있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도 올해 7월은 되어야 시행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아직 FOMO가 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건설 비용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로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 30만 가구대를 유지해 왔던 신규 입주물량은 25년 24만 가구, 26년 13만 가구 등 매년 감소한다. 공급 부족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FOMO 등과 결합했을 때의 파괴력을 지난 정부 내내 목격한 바 있다. 다시 불이 붙는다면 이번 FOMO의 불은 더욱 끄기 어려울지 모른다. 비트코인 광풍이 찾잔 속 태풍으로만 그치지길 바라는 이유다.

안효성 증권부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증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막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6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매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시 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군 수사 당국이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 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정치 쟁점으로 증폭돼 국익과 정상적 외교 위해 이 대사 거취 숙고를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뒤 맹공을 이어 가며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지난 12일 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 대사 임명에선 부담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 대사의 부임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 시킨 사실을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알리지 않아 엇박자를 보였고, 곳곳에서 무리수가 읽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출신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리지 않았으며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장의 낙마 사태를 비롯해 이군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비리 의혹, 김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검증에 실패하며 ‘검증받아야 할 검증 시스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한덕수 총리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수처에선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수사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대사가 잠깐 귀국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 대사의 조사 다음 날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약식으로 대사 교육을 한 뒤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가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임명 절차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문제점을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호주 국영 ABC방송이 한국 대사의 부임 소식을 전하며 “범죄 수사에 연루된 전임 국방장관이 대사직 수행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논란은 호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호주가 안보와 방산 협력에 중요했다면 이런 상황은 사전에 피했어야 했다. 호주 외교부는 이 대사를 환영한다는 의례적 입장이지만 수사받으러 국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대사라면 그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직권 후반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나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출신인 이대사나 용산이 그의 거취를 숙고하는 게 맞다.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겠다는 건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인다. 대학병원 진료가 교수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환자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이 4개 병동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지금 의료 현장은 계속 악화 중이다.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진료 마비 사태는 불가피하다. 교수들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증원 규모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 타협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간 의사들과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벼랑 끝을 향해 달려 왔다. 극단의 대립을 멈추지 않으면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본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의사다. 특히 의대 교수는 장래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술을 전수해야 할 스승이 집단행동 예고로 환자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되겠는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8일을 사직 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자의 앞날은 걱정하면서 당장 치료가 절실한 환자는 상관없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지난 11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환자 피해 신고가 472건이다. 수술 지연 329건, 진료 취소 79건이다. 집계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수술·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삼급 종합병원 20곳에 긴급 투입한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이 어제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나 전공의 1만2000명의 빈자리를 채우긴 역부족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로 해법을 찾는 방안이 최선이다.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에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지만 “정부는 2000명으로 숫자를 정하지 말고, 의협은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으라”는 대목은 일리가 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어제도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차 고수했다.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이 교수로부터 유급 통지를 받는 등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염포를 놓으면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라.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야 하지만 사태를 해결해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에 가세할 태세다. 의대 교수들의 자제와 성찰을 함께 촉구한다.

공부 vs 아부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1 나폴레옹은 “아부란 무능력자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아부꾼은 결국 남의 중상모략까지 하게 된다기도 했다. 유럽 대륙 정복 직후 나폴레옹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내게 아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요. 직언만 해주시오.” 얼마 후 한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다가와 말했다. “폐하, 폐하께서 아부하지 말라고 하신 지난번 그 강력한 말씀, 너무나 멋졌습니다. 모두 감동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반응은 이랬다고 한다. “정말? 정말로 그랬어?”

미국인들의 영원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는 1865년 워싱턴DC에서 흑인 참정권 보장에 분노한 남부 지지자에 의해 피살당했다. 그때 링컨의 주머니 안에서 낡은 신문 조각이 하나 나왔다. 거기엔 빨간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었다. 링컨을 오글거릴 정도로 찬양한, 아부성기 사였다. 트럼프 1기 각료였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의 72번째 생일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조국을 대표해 당신의 리더십 아래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송할 뿐입니다.” 캔자스 출신의 존 제카프 워런 하원의원 폼페이오가 트럼프 정부에서 CIA 국장, 국무장관 등 꽃길을 걸은 이유는 뭘까. 미국의 사상가 랠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아부에 현혹당하지 않는 사람은 있겠지만,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동서고금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게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드라마틱한 아부를 했던 후보들이 공천됐다. 비명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누른 김준혁 한신대 교수. 그는 3년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 생각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태어난 자리 앞에 200년이 넘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 후보(이 대표)에게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을 출간하며 정조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는 낯뜨거운 상상의 글까지 등장시켰다. 7개 범죄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평생을 조신하고 검소하게 산 정조

와 동격이라니 그저 정조께 죄송스러울 뿐이다. 지난해 ‘외모 이상형 월드컵’이란 유튜브 코너에서 이 대표를 가수 차은우보다 이상형이라고 답한 안구령 부대변인은 아예 생판 안고도 없는, 자신이 선거 운동하고 있는 곳이 무슨 동네인지도 모르는 서울 도봉갑에 단수 공천됐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며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했던 아부의 원조 격 박경미 전 의원은 이번에도 서울 강남병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철학자 몽테뉴는 “로마시대 정치적 동요가 제일 심각할 때 수사(修辭)학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고 했다. 그렇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아부가 활개를 친다. 그렇다 해도 소나무·정조·베토벤까지 아부로 소환되는 건 옳프다.

#3 반면에 정작 찬양받아야 할 ‘공부

나폴레옹도, 링컨도 아부 좋아해 하지만 공부보다 우선시는 곤란 ‘아부 공천’에 누가 희망을 보겠나

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얼마 전 범법소비자연맹이 12개 항목으로 평가한 21대 국회 4년간 의정활동 결과에서 민주당 상위 10위 내 의원 중 이변에 공천을 받은 의원은 50%밖에 안 된다. 대부분이 친명 후보와의 치열한 경선으로 내몰려 분루를 삼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섰던 경기 고양정의 이용우 의원.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시 개팔들에게 좌표를 찍히고 ‘수박 당도 4’에 오르더니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여성 척수장애인 국내 최초 재활학 박사로 21대 민주당 영입 인제 1호였던 최혜영 의원. 의료 사각지대의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맹활약했지만 결국 친명에게 밀렸다.

박용진·박광온 의원 등 누가 봐도 의정 활동, 즉 공부를 열심히 한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부가 아무리 달콤하고, 나폴레옹과 링컨도 몰리치지 못했던 것이라도 공부의 설 자리, 순서까지 빼앗는 건 씁쓸하다. 공부가 감점이 되고 아부가 가산점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무슨 희망을 찾겠는가.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자재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제사 미약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51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MAR. 14th - MAR. 17th, 2024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목/금/토/일에 한함

★ 불고기 ✕ 맛대결 ★

담백한 앵거스 양념 순살 불고기 vs 부드러운 양념 돼지 불고기

MARINATED ANGUS BEEF KNUCKLE - TENDER (BULGOGI) / MARINATED PORK BONELESS SHOULDER BUTT (BULGOGI)



LIMIT
6 PACK



BUY 1 GET 1 FREE

목/금/토/일에 한함

앵거스 양념 순살불고기
MARINATED ANGUS BEEF KNUCKLE
- TENDER (BULGOGI)

\$999
LB

VS

BUY 1 GET 1 FREE
목/금/토/일에 한함

양념 돼지불고기
MARINATED PORK BONELESS SHOULDER BUTT
(BULGOGI)

\$599
LB



LIMIT
6 PACK

관심 품종 오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2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53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0930 Fern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800 Ellen Street, Herndon, VA 20170 |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Catonsville, MD 65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902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
 Silver Spring, MD 136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rch 1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은퇴 후 집 줄여 이사할까 그냥 살까

시니어위한 라이트사이징
시니어들에게 '다운사이징'은 어쩔지 조금은 서글픈 단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면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혹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집을 팔고 살림을 줄여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더 이상 큰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힘들어 집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니어들이 집 규모를 줄이는 데는 경제적 이유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운사이징이라는 단어 대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집 규모를 조정하는 '라이트사이징(Rightsizing)'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인다. 시니어들을 위한 라이트 사이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라이프스타일, 재정·건강 상태가 기준 이사 않고 집 개조·정리해도 실현 가능

▶라이트사이징이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거주 공간 크기의 균형을 찾아 웰빙 라이프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라이트사이징이다. 즉 집주인이 공간에 매여 사는, 주객이 전도된 일상이 아닌 거주자의 웰빙을 공간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시니어들에게는 라이트 사이징이 곧 다운사이징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넓은 거실을 가진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그 시니어에게 라이트 사이징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집 사이즈를 줄인다고 항상 비용을 절약하거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을 팔고 집값 비싼 플로리다나 남가주 해변 인근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면 집 크기는 줄지 모르지만 비용 면에서는 그리 큰 절약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필요한가
지나해 오픈도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 규모를 줄여 이사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57%가 '건강 문제'를 꼽았다. 특히 '건강 문제'를 꼽은 응답자들 중 상당수는 은퇴자 및 시니어들이었다. 오픈도어 설문조사 담당자는 "시니어 응답자들은 집 사이즈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가 들면서 집 관리가 버거워진데다 관리가 쉬워지면 정신적으로 한결 편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며 "시니어들은 집 관리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여가활동이나 휴식을 더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목돈 마련과 주택 관리비 절약 역시 다운사이징의 큰 원인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시니어들은 통근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길 원했다. 또 집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라이트사이징에는 집안에 쌓인 많은 물건들을 정리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사진은 너무 많은 장식들로 가득 찬 한 아파트 실내 전경. [unsplash.com 캡처]

▶어떻게 시작할까
라이트사이징을 위해서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모든 방을 사용하고 있는지 ▶손님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현재 집 구조가 생활하기 편한지 ▶가까운 미래에 건강상 변화가 올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현재 주택 규모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또 라이트사이징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주택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TV가 있는 패밀리룸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손님용 거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거실을 은퇴 부부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패밀리 룸을 컴퓨터가 있는 홈오피스나 다른 필요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사없는 라이트사이징
시니어들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것은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이사가 결코 쉬운 결정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성인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직장인이어서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대학 졸업 후 혹은 일자리를 잃어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갑자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네,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객원기자
▶2면 '라이트사이징'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식당 달은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랙빌	Beer &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창고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달은 자리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7,100 SF, 와잇마쉬 MD	주18만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버지니아하든트
식당 달은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도장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상가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식당 달은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 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식당 달은 자리 7800 SF, 임대, VA 에쉬번	사무실 에난테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주택 콘도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영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식당 초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VA 맥클린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 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인기 끌었던 2차전지 ETF 수익률
단위:%, 3월 5일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5.85

**KODEX 2차전지
핵심소재10Fn**
삼성자산운용
2023년 7월 4일 상장

-25.9

**KODEX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삼성자산운용
2023년 7월 4일 상장

최근 6개월
수익률
-18.65

-5.93

**TIGER 2차전지
소재Fn**
미래에셋자산운용
2023년 7월 13일 상장

-25.8

최근 3개월
수익률
-54.54

비만치료제·2차전지... '몰빵형' ETF 주의보

대박 아니면 쪽박. 요즘 비트코인·엔비디아 등의 가격·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금융투자시장에는 어느 때보다도 '한방'을 노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안전보다 고수익을 쫓는 '몰빵형'(집중투자의 속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 경쟁도 뜨겁다.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분산 투자에 따른 안정성이 장점으로 꼽히는 ETF의 '쓸림'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몰빵형 ETF의 최대 격전지는 비만치료제 분야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14일 'KODEX(코덱스)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ETF'를 내놨다.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두 기업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각각 25%씩 투자한다. KB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KB STAR(스타) 글로벌비만치료제 TOP2+'를 상장했다. 이 ETF 역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몰빵 투자한다. 두 기업의 편입비중은 56%로, 앞서 출시된 경쟁 상품을 뛰어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타이거) 글로벌비만치료제 TOP2플러스'를 내놨다. 역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집중 투자한다. 출시 당일 이 ETF의 일라이릴리(28%)와 노보노디스크(28%) 투자 비중은 총 56% 이상이다. 그동안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ETF가 있었지만 영역을 세분화해 비만 분야 상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에 상장된 헬스케어 ETF보다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K팝의 인기를 업고 국내 4대 연예 기획사에 집중투자하는 ETF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성 외면

비만치료 기업에 50% 이상 투자 2주 새 18% 수익 나왔지만 "과열" 2차전지 몰빵형은 반토막 손실도 K팝 4대 기획사 투자 ETF까지 등장

기준에 없던 상품 긍정적 시각에도 종목 쏠림 없게 심사 강화 목소리

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4대 연예 기획사에 95%를 투자하는 ETF를 내놨다. 기준에 미디어·콘텐츠주를 한 묶음으로 한 상품들은 많았지만, 유명 기획사뿐만 몰빵한 상품으로는 처음이다. 그런가 하면 인도 몰빵형 ETF도 출시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6월 상장을 목표로 인도 최대 그룹인 타타그룹에 집중투자하는 ETF를 준비

중이다. 타타컨설팅·타타서비스·타타모터스·타타스틸 등 사실상 타타그룹만 담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비만치료제 몰빵형 ETF 중 선발주자인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ETF는 상장 후 7영업일 만에 순자산 430억원을 끌어모으며 초반 인기 물이에 성공했다. 비만치료제 ETF의 실적도 아직은 쾌속질주 중이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ETF가 상장 2주 만에 수익률 18.1%(2월 29일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ETF 수익률 1위다.

기준에 없던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몰빵형 ETF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ETF는 기본적으로 10개 종목 이상(상장 최소 요건)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규제를 둔 건 ETF가 기본적으로 리스크 헷지형 상품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변동성을 줄이는 게 이 상품의 목적이

다. 몰빵형 ETF도 기본적으로 실재 지난해 2차전지 열풍과 함께 관련 2차전지 몰빵형 ETF가 우후죽순 출시됐는데, 2차전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7월 26일 장중 153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6월 현재 59만 8000원으로 급락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들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5%를 넘나들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54.54%로, 반토막이 넘는 손실을 냈다. 국내 테마형 ETF의 붐을 일으킨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 전기차 SOLACTIVE' ETF도 출시 이듬해인 2021년 2관선을 넘었으나, 현재는 7400원 수준으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다.

로는 ETF이기 때문에 10개 종목 이상이 묶여 있지만, 실제 운용은 소수 종목에 과하게 쏠려 있는 게 특징이다. 코스피 처럼 지수를 추종하거나,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일반적 ETF의 운용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유행에 잘 올라타면 대박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크다.

실제 지난해 2차전지 열풍과 함께 관련 2차전지 몰빵형 ETF가 우후죽순 출시됐는데, 2차전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7월 26일 장중 153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6월 현재 59만 8000원으로 급락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들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5%를 넘나들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54.54%로, 반토막이 넘는 손실을 냈다. 국내 테마형 ETF의 붐을 일으킨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 전기차 SOLACTIVE' ETF도 출시 이듬해인 2021년 2관선을 넘었으나, 현재는 7400원 수준으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월가에선 현재

780달러 수준인 일라이릴리의 목표 주가를 1000달러까지 상향한 전망이 나오는 한편, "파티에 가기엔 너무 늦었다"는 과열 경고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주가는 520% 이상 급등했고, 최근 1년간 100% 이상 상승한 피로감이 적잖아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급락하면 비만 관련 ETF 역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바이오 전문가는 "일라이릴리 주가가 이미 매출 정점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 가격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ETF 규제를 나섰다. 4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테마형 상품과 관련해 테마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일부 극소수 종목의 투자 비중을 극대화하면서 ETF의 분산투자 효과가 낮은 상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신규 상장 종목 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상품이 일시에 쏟아지는 '무분별한 베끼기'를 막기 위해 유사한 상품이 이미 시장에 상장돼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 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특정 소수 종목에 ETF의 구성 종목이 편중되지 않도록 질적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ETF는 구조상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치중될 경우 (투자자가 보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식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변동성이 높은 테마 ETF에 고가에 들어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최근 출시된 테마형 ETF

상품명 / 운용사 / 핵심종목 (비중)	상장일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 삼성자산운용 /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50%)	2월 14일
KBSTAR 글로벌비만치료제 TOP2+ / KB자산운용 /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56%)	2월 24일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 TOP2플러스 / 미래에셋자산운용 /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56%)	2월 29일
ACE K-POP 포커스 지수 / 한국투자신탁운용 / 4대(에스엠, 하이브, JYP, 와이즈) 기획사 (95%)	1월 31일

자료: 한국거래소

▶ 1번 '라이트사이징'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팬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라이트사이징할 필요가 있다

.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2층 침실을 1층으로 옮기는 비교적 큰 프로젝트부터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수납장 물건들을 낮은 곳으로 옮기는 작은 일이라도 다양한 생활공간 혁신이 라이트사이징에 포함된다.

▶ 물건 정리

거주자에게 맞는 라이트사이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집안의 물건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해왔다면 장기간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십 년간 쌓인 물건을 단 며칠에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청소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리할 항목을 정해놓고 매일 버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5.30%	5.30%
	\$115,597	\$129,461	\$143,548
\$300,000	4.95%	5.30%	5.30%
	\$346,791	\$388,385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입주 시작하는 '고도 위반' 김포 고촌아파트

기껏 아파트 잘랐는데... 공항 옆 고도 초과 장애물 3647곳

'3월 12일부터 입주 시작'

지난달 29일 카카오톡으로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신축 양우내안에 아파트 관계자의 연락이다. 8개 동 399가구의 이 아파트는 두 달 전에 입주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높게 건설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이사 직전 "입주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공항 인근에 적용되는 고도제한 높이(57.86m)보다 63~69cm 초과했다는 이유다. 살던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22일 한국공항공사가 '해당 건축물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했다'고 통보한 이후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멸절한 아파트 윗부분 69cm 이상을 잘라내는, 사상 초유의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공사를 마친 아파트의 윗부분을 제거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지만, 허가 당국의 입장은 완강했다. 지난달 시작한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15층 아파트의 옥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 8일 오후 3시쯤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전쟁터 방불케 한 '아파트 자르기'

지난 1월 26일 현장 취재한 옥상은 여느 아파트와 비슷했다. 엘리베이터 관련 설비가 설치된 옥탑 시설에 옥상 출입문이 있고 난간이 웅장하게 옥상을 감싸고 있었다.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한 달여 동안 공사를 진행한 결과 옥탑 건축물이 63cm 이상 잘리면서 천장이 확 낮아졌다. 옥상으로 향하는 복도는 보통 키(1m 74cm)인 기자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옥상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공사를 마친 직후보다 옥탑 시설 높이가 확 낮아졌다. 옥상 난간도 재시공해 윗부분을 잘라냈다. 공사 후 안전 점검에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비와 관련된 옥탑 시설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최근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추락방지안전장치' '제동' '과속 보호'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고도제한 위반과 관련해 "그 부분은 재시공으로 해소가 됐다"며 "공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서도 괜찮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옥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단지는 "전쟁터 같았다"고들 한다. 8개 동 옥상에서 다 지은 철근 콘크리트



제한 고도를 초과한 경기도 김포시 고촌 양우내안에 아파트 옥상의 지난 1월 모습(왼쪽)과 건물 일부를 잘라낸 이후인 지난 8일 모습. 사진 속 인물은 광종근 지역주택조합장이다.



1년 동안 당국 뒤흔었다

트 건물을 잘라내는 위태로운 작업이 벌어졌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육중한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작업은 위험했다. 잘라낸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 또한 고난도다.

지난 1월 현장을 돌아봤을 때 지하 주차장에 금속으로 된 기둥을 촘촘히 설치하고 있었다. "주차장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옥상에서 지상으로 운반하려면 초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다. 크레인 무게에 콘크리트 덩어리 중량이 실리면 자칫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 '잭 파이프'를 촘촘하게 받친 것이다. 다행히 공사는 무사히 끝났다.

새 아파트를 잘라내는 공사로 인해 시공사는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대부분 서민인 입주자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야 했다. 고도제한을 69cm 초과했다는 이유로 건물을 훼손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관련 당국의 완강한 입장에 공사가 강행됐다.

건설업계에선 "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을 초과한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 건물이 고도제한을 초과하면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업체 등에 제재를 가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안전 우려가 없는 한 아파트를 훼손한 이번 사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옥상에서 주변을 관찰해봤다. 맨눈으로 보기에 양우내안에 아파

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 보이는 아파트도 있다.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런데 모두 양우내안에 아파트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항로로 날아간다. 비행 고도 역시 상당히 높아서 아파트 옥상에 충돌할 위험은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문제의 높이에 도달한 시점은 이미 1년 전이다. 공항공사는 아파트 건축 허가 당시 "최고 높이가 도달 후 7일 이내"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관련 당국에 공사 현황을 보고했음에도 정밀 측량 등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면 지난 1년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가 된다.

공항 주변에 이런 장애물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은 2016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5년 기준 김포, 제주 공항 등 7개 민간공항의 경우 약 3000 여개소의 초과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는 것이다(박담용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 4항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내의 모든 장애물에 대해 5년마다 정밀측량을 해 파악한 결과다. 69cm 높이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어진 건물을 잘라내야 했다면 3000여개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까. 특히 논문에선 관련 당국의 측량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밀 측량을 재실시한 결과 몇 가지 미흡한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났다'며 '5년 전에 측량해 추출한 초과 장애물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측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논문으로 드러난 공항 안전관리

고도제한을 어긴 장애물이 3000여 개에 이르는 논문 내용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공사 측 관계자는 "박담용 전 안전시설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논문의 내용을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고도제한 초과 장애물 중 고발이나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 등 조치는 관할 항공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토교통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전국 공항에서 관리 중인 인공 장애물이 364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또한 2022년에만 18건의 고도제한 초과 장애물 제거 및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신규 장애물 발생 조치가 이뤄졌다. "신규 장애물 발생 조치가 이뤄졌다. "신규 장애물 발생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실정에서 새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69cm 초과했다고 비행 안전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훼손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파트 훼손 부적절' 지적 이어져

이 아파트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1년 전에 공항공사 측이 안전 문제 확인에 나섰다면 적어도 399가구 입주민들이 한겨울에 임시 거처를 떠도는 상황은 막았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신월7동 일대 재개발과 관련, 공항공사 측과 협의해 고도제한을 57.86m에서 66.49m로 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가 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58.55m)보다 훨씬 높은 고도다. 광종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장은 "일단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인천 강화의 지인 집에서 지내온 임효순(61·여) 씨는 "12일부터 입주가 된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14일로 이사를 잡았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오피스텔에서 지내온 김명렬(74) 씨는 "난방이 잘 안 돼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병원에 다녔다"면서 "오는 18일에 이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돌아본 아파트는 공사 후유증이 곳곳에 남았다. 단지 내 보도블록은 상당수가 깨졌다. 옥상의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땅에 내리려 대형 크레인을 설치해 작업한 결과다. 바닥에 쓴 '119 소방차 전용' 글씨도 벗겨졌다. 아파트 입구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12일엔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기계적 법 적용 잘못"

서울대 건축학과 박문서 교수는 다지은 아파트 위쪽을 잘라낸 조치에 대해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한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건축엔 오차 범위가 있는데 법으로만 따지면 해결이 어렵다"며 "건축법 적용은 원칙과 실효성을 담을 수 있는 오픈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용의 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을 접목해 사업 초기부터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저축 여부를 확인 가능한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종근 논설위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im Kyung-ja Real Estate. Features listings for Springfield Field Townhome, Fairfax Singlehome, Fairfax Townhome, and Lisberg Singlehom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Advertisement for Dr. Kim Eung-won, a chiropractor. Text: '교통사고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Includes services like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and contact info: T. 410-740-0055.

‘돈 먹는 하마’ 된 재건축 ... “합치고 낮추고 줄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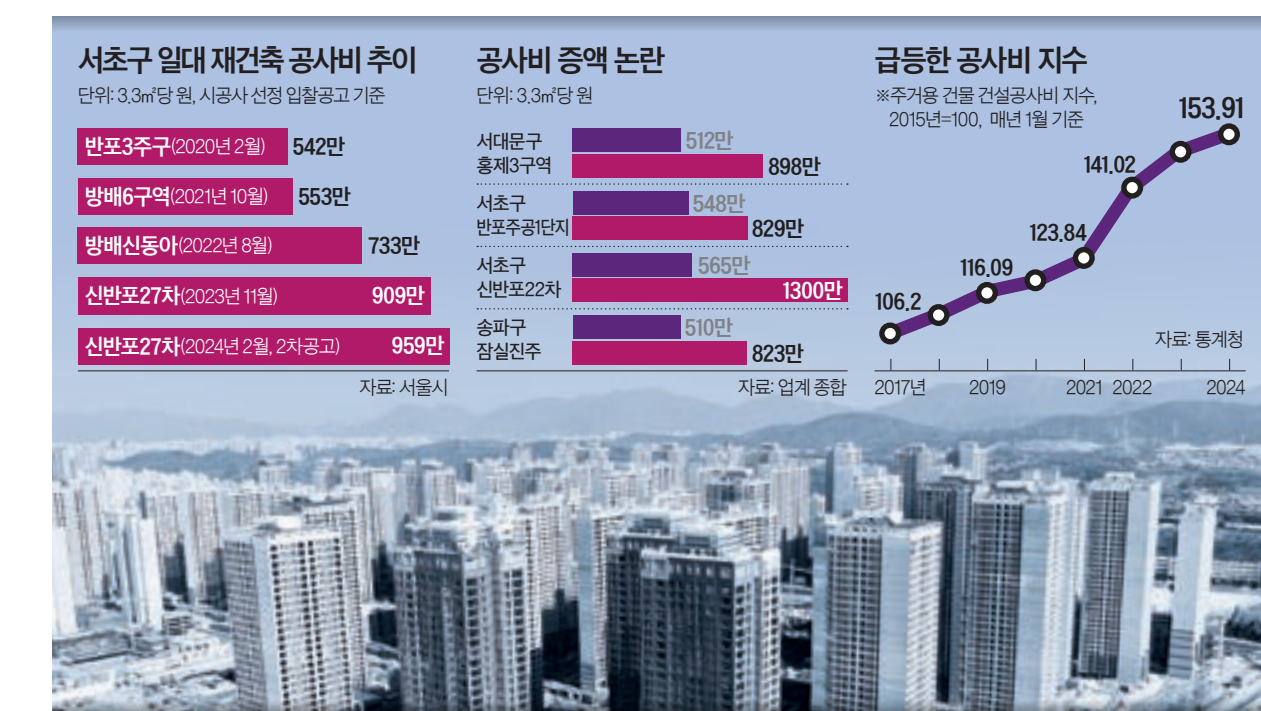
웃음소리가 피질 것 같은 재건축 시장에 한숨 소리가 깊다. 공사비 급등이라는 불청객이 가져온 격정 때문이다. 재건축으로 로또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은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재건축 문턱을 없애고 사업성에 부담이 되는 걸림돌들을 치우겠다며 올해 들어 세부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제도 도입 30년 만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한다. 이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이란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꾼다.

재건축으로 짓는 아파트 규모를 지금보다 1.2배나 1.5배까지 늘린다. 용적률(사업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역세권 120%까지, 노후계획도시 150%까지 완화한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현재 300%에서 450%까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 저승사자로 불린 재건축부담금도 기존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 정도면 재건축 시장은 장밋빛 일색이아야 맞다. 그러나 먹구름을 몰고 온 게 공사비다.

전용 84㎡ 건축비만 3억6000만원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 시대를 맞았다. 이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한 기준으로, 대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34평형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3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가 시공사를 정하기 위해 공고한 공사비가 3.3㎡당 959만원이다. 이달 초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은 3.3㎡당 920만원이었다.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장에서 3.3㎡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용산구 남영동제2구역과 마포구 마포로1-10



지구가 각각 3.3㎡당 1070만원과 1050만원이었다.

서초구 일대 공사비가 2020년까지만 해도 3.3㎡당 500만 원대였다. 2020년 2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가 3.3㎡당 542만원이었다. 이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2022년 700만 원대로 뛰더니 2023년 800만 원대에 들어선 뒤 900만 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자재값 등 건설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 기준)가 지난 1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최근 3년 새 24.3% 올랐다. 2000년 이후 평균 3년 상승률(11.8%)의 2배가 넘는 다. 주요 건축자재인 철근·시멘트 가격이 최근 3년간 50% 넘게 뛰었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만, 원가 부담을 느끼는 건설사들이 수주에 소극적이어서 조합들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를 올려 다시 시공사를 구하기도 한다. 신반포27차는 당초 지난해 11월 3.3㎡당 909만원을 제시했다가 입찰이 유찰되자 이번에 3.3㎡당 50만원 더 올렸다.

공사비가 치솟기 전 계약한 단지에서선 공사비의 증액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2017년 3.3㎡당 560만원에 계약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는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에서 3.3㎡당 1300만 원대로 증액을 요구해 협의 중이다.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서선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공사 중단 파행 끝에 3.3㎡당 650만원에 타결된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비가 지금은 부러운 수준”이라며 “그나마 공사비가 많이 오르기 전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덕이었다”고 말했다.

노원 5억, 반포 12억... 추가분담금 공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추가분담금은 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등 전체 사업

비에서 조합원·일반 분양수입을 뺀 금액이다. 조합원이 재건축을 위해 내놓은 기존 건물(토지 포함)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사비가 추가분담금을 좌우한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는 조합원당 추가분담금이 5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서초구 신반포 18차 2337동은 전용면적을 111㎡에서 97㎡로 줄이는데도 추가분담금을 12억원 더 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는 공사비를 2019년 계약한 2조636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1조4412억원 올려달라고 지난달 요구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분담금만 조합원당 4억원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추가분담금 무서워 재건축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돈 먹는 하마’로 바뀐 셈이다.

강남의 경우 일반분양분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추가분담금 증가에 일조한다.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상승률이 공사비 상승률에 뒤처지면서 실제 공사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공사비가 3년여 사이 55% 오르지만 같은 기간 상한제 건축비 상승률은 30%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단지(메이플자이)의 일반분양분 가격 중 건축비가 3.3㎡당 672만원이었다.

초고층·고급화·큰 집 ‘3대 거품’

재건축 순항을 위해선 추가분담금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규모의 경제가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덩치가 클수록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줄어든다. 3.3㎡당 900만원이 넘는 신반포27차와 도곡개포한신은 재건축 규모가 1000가구 미만의 중소사업장이다. 3.3㎡당 1300만 원대에 협의 중인 신반포22차는 2개 동 160가구의 미니 단지로 재건축한다. 여러 단지를 합친 통합 재건축이 공사비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층수를 낮추면 공사비도 낮출 수 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벽 등이 더 두꺼워지고 튼튼해져야 한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등이 초고층을 포기한 이유다. 지난해 단지 고급화도 공사비를 부추기는 요인이어서 고가 외산 마감재 등을 자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은 재건축 뒤 배정받는 새 아파트 크기를 줄이는 ‘다이아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지고 줄어든 조합원 집 크기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 이중으로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경기 과열과 함께 부풀어 올랐던 재건축 거품을 걷어낼 때다.

안정원 부동산전문기자

다시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 넉 달 만에 8만건 넘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다. 지난해 집값 반등을 이끈 특례보급자리론이 중단되고 연초 신생아 특례대출이 바통을 이어받아 1,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지만 추격 매수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11일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아실’(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매매를 위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6일 8만149건을 기록해 넉 달 만에 8만 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

파트 매물은 지난해 6만~7만 건대를 유지하다가 11월 초 8만 건을 살짝 넘어섰고 지난달까지 7만 건에서 오르락 내리락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2022년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3만~6만 건대였다.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 매매 심리도 갈려 있다. 시장에서 특히 지난달 말 시작된 금융권의 스트레스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향후 주택 매매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입과 밀접한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전·월세로 이동하거나 관망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짝 상승한 것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은 2552건을 기록해 작년 12월(1824

건)보다 40% 증가했다. 2월 거래량도 10일 현재 1817건 신고대 1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초 1월 말 특례보급자리론 중단 이후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곧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풀려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기 전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 잠실, 마포 등 인기 대단지에선 지난해보다 상승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층과 7층 매물이 각각 24억1000만원, 23억원에 거래됐다. 연초 22억원대에서 1억원 이상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작년 말보다 1억원가량 오른 14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됐다.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 2월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왔지만 매물도 쌓이고 있는 건 추격 매수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물 적체는 다시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민정 기자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300m

영아패션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Finance License Numbers: DC MLD 1108895; MD 06-20926; NC 161472; VA MC-2771; DE 03648; TX: PA 101075; WV MLD-1108895; MB-1108895; GA 1108895; SC 11088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895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 2

\$8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Down Payment Assistant (DPA)

여전히 강력한 셀러 마켓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irst-time home buyer 들을 위한 혜택을 강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서 소개되고 있다.

첫주택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은 늘 있어왔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 실제로 적용이 널리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훌륭한 혜택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했던 것도 어찌 보면 현실의 한계였기도 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시중에 종종 소개되는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는 다양한 그랜트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왔는데, 실제로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활용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바로 경쟁이 심한 주택시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첫주택구입자들은 낮은

다운페이먼트를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의 주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셀러들이 캐쉬 오퍼 또는 가급적 다운을 많이 하고 용자를 적게 얻는 구매자를 선호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셀러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개된 다양한 첫주택구입자 지원책들은 어찌되었던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는 반길 수 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정 받은 다양한 첫주택구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입자 혜택들이 결국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던 주택시장을 올해 반등의 정점으로 삼게하는데 큰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비록 아직은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높은 부동산 가격의 부담이 현존하지만 향후 곧 이자율이 하락하면 따라올 더 치열해질지 모를 경쟁을 피하고 이

참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은 큰 작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10,000 그랜트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존의 여러 첫주택구입자들 프로그램에서 제한 적용되었던 인컴 기준이 없어짐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여러 다양한 첫주택구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해당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서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 혜택을 얻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나 다른 조건에서 이를 상충할만한 반대급부를 받았던 부정적인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소개된 프로그램은 단순히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따라 자격요건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또다른 기회와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되는 첫주택구입자의 경우는 \$10,000 지원금을 받게 됨은 물론, 주택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중 주택감정비와 홈워렌티 비용까지 각각 \$500 씩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이자율이나 용자 조건 또한 일반 프로그램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도입은 비록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긴 하나, 올 상반기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수익성

투자 목적으로 수익성 부동산 구입을 생각할 때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와 합리적인 가격이다.

콘도나 타운홈, 그리고 단독주택 등 거주 목적의 주택인 경우 주위에 비슷한 조건의 집이 팔린 것을 비교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인컴 유닛이나 아파트를 비롯한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건물 매입에 앞서 매년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이때 연수입 계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수익환원률(캡레이트·CAP Rate)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캡레이트는 투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수치로 바이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매해 들어오는 순수입을 그 부동산의 매입가격으로 나눈 수치로 부동산의 연간 순수익률이다. 즉 캡레이트는 부동산을 통해 들어온 일 년 동안의 모든 수입에서 재산세 등의 세금과 화재, 지진, 홍수 등의 건물보험과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뺀 연 순수입을 구매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캡레이트는 바이어는 물론이고 용자를 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도 부동산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수치이다.

한편, 수익성 부동산의 평가에 흔히 쓰이는 또 다른 수치로 총수입배수(GRM·Gross Rent Multiplier)가 있는데 GRM은 부동산의 가격을

일 년 총수입(Gross Income)의 몇 배로 할지 정하는지의 배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일년에 렌트 수입이 12만 달러인 아파트의 가격이 180만 달러라면 이 아파트의 GRM은 15가 된다. 그리고 일 년 렌트 12만 달러에서 비용 4만 달러를 뺀 순수입이 8만 달러 일 때, 순수입 8만 달러를 180만 달러로 나눈 후 100%를 곱하면 캡레이트는 4.4%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율(cash on cash return)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는 총수입에서 경비와 용자 상관액을 뺀 실제 수입을 다운페이로 나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용자액과 이자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캡레이트보다는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수입이 창출되는 부동산이라도, 부촌에 위치한 것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인컴 유닛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캡레이트가 낮은 매물은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건물이 비교적 새것이고, 안정적인 테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에 대한 가치 상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투자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자자 개인의 재정 형편과 방향이다. 어떤 투자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많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에 적당한 매물을 사기도 한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높은 캡레이트의 매물보다는 세금공제의 혜택이 많은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미셸 원 BEE부동산 부사장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책정

상업용 부동산 리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리스의 성격과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3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변화에 대비하여 렌트비를 책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 렌트(Fixed Rent)가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주가 계약할 때 명시한 기간에 렌트비 상승 없이 고정된 렌트비를 내는 리스 형태를 말합니다. 그로스리스(Gross Lease) 혹은 넷리스(Net Lease) 형태와는 상관없이 기본 임대료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테넌트가 직접 협상을 하거나, 1-2년의 단기 렌트에 사용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단형 리스(Step Leas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임대 형태로 매년 혹은 명시된 주기(3년, 5년 등)마다 렌트비를 상승하는 방식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렌트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 물가상승률이 3%를 넘지 않았던 점에서 매년 3% 인상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매년 4% 혹은 5% 인상의 계약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널드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 5년마다 10% 인상하는 계약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수 리스(Index Lease)가 있습니다. 여기서 렌트비 인상은 건물주와 임주가 정한 특정 지수에 의해 조정됩니다. 대부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하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인상 시기 두 달 전의 CPI 지수를 가지고 다음 해 인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수 리스에 최소와 최대 상승률(보통 최저 3%와 최고 6%)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인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건물주와 테넌트 양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는 건물주는 최소 3% 인상을 보장받고, 테넌트는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6% 이상은 인상이 되지 않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퍼센티지 리스(Percentage Lease)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기본 렌트 외 임주의 영업실적에 따라 추가 렌트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임주의 영업실적이 높아지면 렌트비를 더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렌트가 월 10만 달러이고, 퍼센티지 렌트가 매출 60만 달러 이상에 대해 4%라면, 임주의 매출이 60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기본 렌트비에 더해 추가 매출의 4%의 렌트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 계약에는 이러한 다양한 렌트비 유형이 존재합니다. 각 유형은 건물주와 임주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테넌트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부동산 계약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관리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트 구·CBRE KOREA DESK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p>COMING SOON</p> <p>Bowie</p> <p>싱글홈</p>	<p>COMING SOON</p> <p>Columbia</p> <p>타운홈, 방3, 화2.5</p>	<p>COMING SOON</p> <p>Millersville</p> <p>\$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5</p>	<p>COMING SOON</p> <p>Ellicott City</p> <p>싱글홈, 랜처 스타일, 내부수리 좋은 학교, 0.75 에이커</p>
<p>COMING SOON</p> <p>Cockeysville</p> <p>싱글홈, 방4, 화2.5, 내부수리중</p>	<p>UNDER CONTRACT</p> <p>Hanover</p> <p>\$49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p>	<p>UNDER CONTRACT</p> <p>Odenton</p> <p>\$489,000 싱글홈, 방3, 화2, 즉시입주 가능</p>	<p>UNDER CONTRACT</p> <p>Frederick</p> <p>\$386,000 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Cockeysville</p> <p>싱글홈, 방4, 화3, 내부수리중</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Elkridge</p> <p>월 \$2,800 타운홈 방4, 화장실3, 차고1</p>	<p>RENTED</p> <p>Baltimore</p> <p>월 \$2,400 타운홈 방4, 화장실4</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RENTED</p> <p>Glen Burnie</p> <p>월 \$1,850 콘도 방3, 화2, Top Floor</p>	<p>COMING SOON</p> <p>Hanover</p> <p>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RENTED</p> <p>Odenton</p> <p>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새벽 5시30분 야구장 오픈런, 이게 '류현진 효과'

류, KIA 상대로 대전구장 복귀전
곳은 날씨에도 시범경기에 3500명
류현진 선수 유니폼도 200장 품절

“와, 벌써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선 거예요? 류현진이 대단하긴 대단하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가 열린 1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경기 시작 3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손님을 싣고 이곳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야구장 주변 풍경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평일 오전인데도 대로변 상점가까지 긴 줄이 이어져 포스트시즌을 방불케 했다.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이유는 간단했다. 12년 만에 금의환향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이 이날 복귀 후 처음으로 KBO리그 공식 경기에 출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류현진의 대전구장 등판은 2012년 10월 4일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전 이후 4172일 만이었다.

평일 시범경기는 관중이 무료로 선착순 입장한다. 더 좋은 자리에서 류현진을 보려는 한화 팬들의 발걸음이 새벽부터 이어졌다. 그 대기 줄의 맨 앞 자리를 차지한 회사원 신우재(26)씨는 “오전 5시 30분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중앙 테이بل석에서 보고 싶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서둘렀다”고 털어놨다. 대전에서 사는 신씨는 류현진을 직접 보려고 하루 휴가까지 냈다고 했다.

신씨는 이날 새로 산 류현진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지켜봤다. 최근 한화가 야구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류현진의 오센틱(선수들과 동일한 제품)



12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 KIA의 시범경기에서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12년 만에 복귀한 류현진은 이날 KBO 첫 공식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대전구장엔 3500명의 팬이 관중석을 메웠다. [뉴스1]

유니폼은 초도 물량 200장이 하루 만에 동났다. 레플리카(복제품) 유니폼도 하루 평균 200벌씩 팔리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례적인 판매량이다. ‘류현진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쌀쌀한 날씨에도 3500명의 팬이 입장했다. 돌아온 에이스가 흰색 한화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자 한화와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팬은 12년 만에 대전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류현진의 뒷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했다. 류현진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함성이 커서 기분이 좋았다. 그 덕분에 재미있게 던졌다”며 “시범경기인데도 팬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기다려주시

는 걸 봤다. 나도 그 마음에 최대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KIA는 이날 류현진을 상대하기 위해 베스트 라인업을 내세웠다. 이범호 KIA 감독은 경기 전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있기만 해도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투수”라며 “주전 타자들에게 류현진의 구종과 구질을 가장 먼저 체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류현진은 1회 1사 후 이우성에게 우월 2루타, 김도영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고 1실점 했다. 그러나 그제 위기의 전부였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이 증명한 류현진의 날카로운 제구력에 양팀 선수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3루수 자리에서 류현진의 투구를 직

접본 팀 후배 노시환은 “내가 본 모든 투수 중 제구가 가장 좋았다. 모든 구종을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비할 때도 정말 편했다”고 했다. 류현진을 상대로 유일한 적시타를 친 KIA 김도영도 “값진 경험을 했다”며 “모든 구종이 완벽했다. 특히 제구력이 워낙 뛰어났고, 직구도 구속에 비해 힘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현진의 이날 성적은 4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까지 나왔고, 직구 평균 스피드는 시속 144km였다. 류현진은 “생각보다 스피드가 잘 나왔다. 체인지업 제구

가 조금 흔들린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며 “앞으로 투구 수와 이닝 수를 늘리면서 주 무기인 체인지업을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최원호 한화 감독도 “류현진이 4이닝 동안 구위와 제구 모두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줬다”며 흡족해했다.

류현진은 오는 17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부산 시범경기에서 마지막 실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날 투구 수를 최대 80구까지 끌어올린 뒤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대전=배영은 기자



1회 실점 후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류현진. 이날 투구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남태현 근황…“재활센터 퇴소, 알바하며 앨범 제작”



가수 남태현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근황을 전했다.

13일 남태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활센터에서 퇴소하고 같은 건물에 공간을 얻어 계속해서 단약 의지를 굳히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남태현은 “저의 정신과 영혼은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며 “이곳에서 저의 잘못된 생활 태도와 사고방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세상에 섞이려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제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결국 ‘음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심혈을 기울여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기에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조금씩 제작비를 마련하고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면서 “이 음악들이 세상에 나올 때는 기

다려주시 분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더욱 자신을 성찰하고 누워치며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남태현은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

도 있다. 이에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1월 18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워너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6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했다. [현예슬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불서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care of (something) ; ~를 미리 처리하다, 해결하다

(Sue and Maggie are preparing for a company picnic~) (수와 매기가 회사야유회를 준비하고 있다~)

Sue: I'm buying the hamburgers and hotdogs. 수: 내가 햄버거와 핫도그를 살게.

Maggie: And I'm buying the chicken. 매기: 난 치킨을 사지.

Sue: What else do we need? 수: 또 뭐가 필요하지?

Maggie: There will probably be some people who don't care for meat.

매기: 아마도 고기를 안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Sue: You're right. Let's make some vegetarian dishes. 수: 맞아. 야채 요리도 좀 만들자.

Maggie: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매기: 사람이 많이 올 것 같거든.

Sue: You can count on it. Everyone from work is coming. 수: 분명 그럴 거야. 직장 사람들이 모두 오니까.

Maggie: And they're bringing their kids. 매기: 게다가 아이들까지 데려오잖아.

Sue: I hope we don't run out of ice like we did last year. 수: 지난해처럼 얼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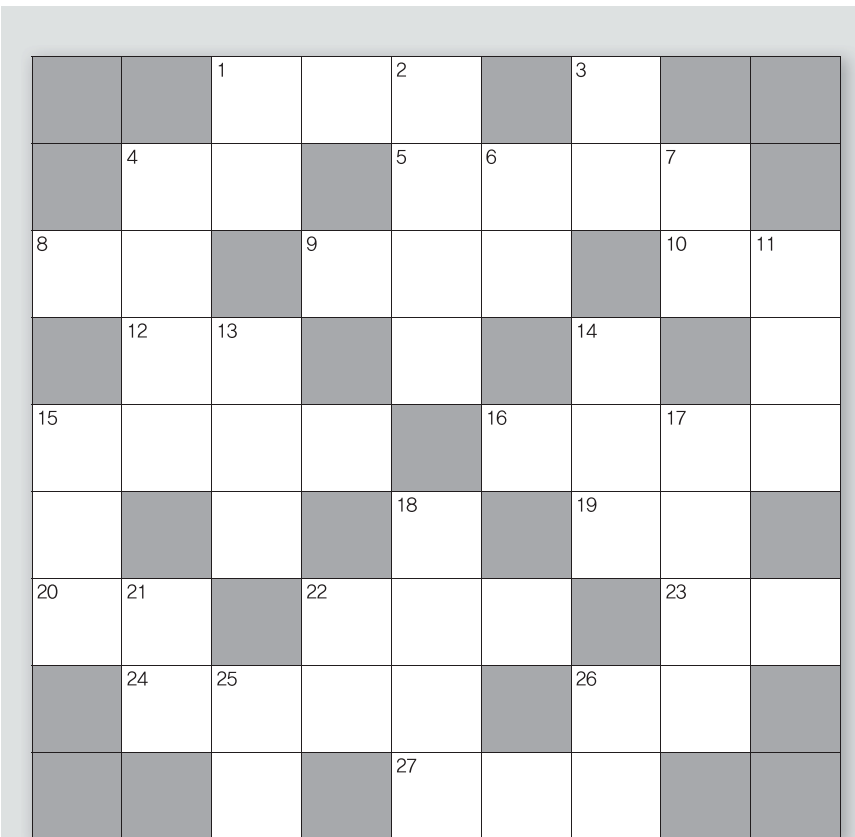
Maggie: My husband is taking care of the ice. He's going to buy a lot of it. 매기: 우리 남편이 얼음은 책임질거야. 아주 많이 살 거야.

▶ don't care for: ~를 안좋아하다 "I don't care for her parents." (전 그녀의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 count on (something): ~를 믿어도 좋아요 "You can count on your plane to be late. It's raining." (당신 비행기 분명 늦을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가로열쇠

(1)술 바닥에 늘어붙은 밥 (4)1, 3, 5, 7, 9, 11... (5)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신생아실에서 ~이 들려왔다 (8)얼부풀어 더덕처럼 마른 북어. 빛깔이 누르고 살이 연하며 맛이 좋다. 대관령 ~ 덕장 (9)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일곱 빛깔의 줄이 생기죠 (10)방을 덥히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 (12)아랫도리에 입는 옷 (15)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16)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19)원통 모양으로 된 물건의 아가리의 지름 (20)그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 ~ 밑에서 손가락을 열었다 (22)토목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 (23)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미안도 하고 ~도 하여,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심경이었다 (24)병이 심하지는 않으면서 오래가는 모양. 그의 아버지는 ~ 앓다가 죽고 어머니가 혼자 그를 키웠다고 한다 (26)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짓 (27)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것

세로열쇠

(1)새어 나오는 물 (2)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함. 그 영화에서 두 연인의 사랑은 정말 ~했다 (3)당신 최고야! 할 때 이 손가락을 치켜들죠 (4)통이 매우 좁은 바지 (6)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저 ~ 너머에 우리 집이 있다 (7)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세종 대왕은 학문과 과학에 조예가 깊은 ~이셨다 (11)등불 따위가 휘황하게 켜 있어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곳 (13)철사를 몇게 하는 약 (14)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기 위하여 만든 구멍 (15)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 그놈은 ~이 끼었는지 밤낮으로 싸다닌다 (17)만 이량의 푸른 물결.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요즘 그의 사업은 마치 ~에 뜬 작은 배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18)외손뻑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함.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고로로 (21)얼어 죽은 시체. 죽었으면서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체 (22)낮은 물건 (25)층계, 다리의 가장자리에 세우는 구조물. ~에 기대지 마세요 (26)가을철에 잡아서 담근 새우젓

스도쿠

9x9 Sudoku grid with some numbers filled in.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x3 Mini-Sudoku grid.

10x10 grid for a word search puzzle with Korean characters.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method.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금지**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DC 건물 | 샤피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샤피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헬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 / 리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SOLD \$2.5M VA. 새로지은 NNN 건물	SOLD \$2.9M VA. NNN 건물, Drive-Thru	SOLD \$3.8M NNN 건물, Drive-Thru	SOLD \$3.8M Days Inn, WM Co. 72 Rooms
SOLD \$2.5M VA. NNN 건물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SOLD \$2.4M DC. Capital Hill 지역	SOLD \$4.5M Poppyes 테넌트, 연인컴 \$32만
SOLD \$1.5M DC NW. Metro 상권, 5 유닛	SOLD \$6.8M VA Industrial Flex	SOLD \$2.2M MD Silver Spring	SOLD \$4.1M MD Hyattsville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도매업/식품/수입/장비 MD 56,500 SF 창고 \$5.9M



땅 6에이커, 건물 56,500 SF, 8 Loading Docks, 2 Drive-In, 26 FT 천장높이, Pad Site 9,000 SF 증축 가능
건물내기차 CSX Transload 가능, 전기 3,000 AMP, 연 \$450K 렌트인컴, SBA 융자, 공동투자 가능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 (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T&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로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말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할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co.kr

josephleejtbc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첸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 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시스턴트와 리셉션리스트 파트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소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스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중앙일보**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엘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들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프!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프,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프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성악 전공 / 지휘 전공 / 음악 전공 (지
휘 경력)
-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에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레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 분, 성실한 분
213-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약,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들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방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 분 파트타임 남녀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 분
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각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타운홈(마트 앞, 월\$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타운홈
방 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 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무, 비흡연자

703-400-4520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강가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버크 월마트 도로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장실1(냉장고/세탁
기/전자렌지/싱크/옷장/식탁)
워크아웃, 주차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4월15일 이후 입주 가능
202-505-0678 (문자 문의 바람)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 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무 \$800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말 입주
703-975-0123

MD 렌탈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큰방, 1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렌트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8-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무,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룸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편리)
잠만 자실 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 U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전
체(입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홀 2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 인터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홀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한한 콘트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매릴랜드 자이언트엠편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뉴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알터레이션 가능한 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 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더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센트 4-9 SP번까지 8개
- 단랍 (스페인제) 3-9 PS 7개
-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쥬기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스타(02) 아이언 7pec
- 3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스타(08) 드라이버 /3번 우드
- 4스타(07) 5번 우드
- 4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수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 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임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더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정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웃 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
구 및 타일 플러워 왁스
▶703-967-4155

구독신청 : 703-281-9660,1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 보험
확실한 세관 처리 및 서류 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지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 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 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텍,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함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3월의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봄 큰 세일 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진정·보습·건조예방 3중 케어, 저자극 포뮬러의 쫄쫄한 텍스처
 피부탄력강화 지선체™가 2배 함유, 2배 더 탄탄한 피부로!
Sulwhasoo 설화수 탄력크림 75ml
 1개 \$79 2개 \$148

송알송알 1개+그때그대로 3개+백명란 3개+숙성고 3개
 400년 역사의 덕화명란의 시그니처로 봄 입맛 찾으세요!
명장의 레시피 덕화명란HSS 10종 패키지
 덕화명란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실속형 패키지 \$120



지리산 산수유청 + 산수유잼 + 말린 산수유 3종 선물세트
 대한민국 No.1 청정지역 지리산아래 전남 구례에서 재배&수확
쏠라베리 지리산 산수유 선물세트
 소중한고 고마운 분에게 드리는 태양의 기운 \$29.99

기침, 가래, 해수 천식, 면역력 증강, 환절기 필수품
 서리맞은 토종무, 무농약 마늘, 생강, 국산부재료로 만든 제품
명인이 만든 도해 무엇 식후30분, 취침30분전 하루 4번 섭취
 2박스 20%할인 \$191.92 1박스 \$119.95



감사세일1+1 색소와 보존료 무첨가 자연 그대로의 우슬!
 소의 무릎을 닮아 쇠무릎이라 불리는, 관절에 특효 우슬청
관절에 좋은 황소 무릎 우슬청 20 스틱
 어디에나 두고 떠먹는 건강청, 1일2회 ~~\$79.99~~ \$59.99

복주머니 선물 포장 큰 스푼 1P + 젓가락 1쌍 + 포크 1P
 스테인레스 스틸 (STS304) + 24K 순금 도금 (순도 99.9%)
골드문 명품 금수저, 젓가락, 포크 세트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69.98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만
 (714)552-5714

스시/월남국수 식당

변화한 사명물안, 4000SF
 BBQ와 데리아기 시설완비
 전채로델링,트레이서티 워싱턴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607

Casino All Auto Program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능한
 간편한 프로그램
 고정 고수익
 (702)773-2249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용한 전문가들입니다!
 ASK미국에 문의하세요!
 ask@koreadaily.com Tel: 542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트리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e@yonsei.ac.kr

한의학박사 서영수 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산삼음용과 도인력사과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주산삼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할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부어나박 천종산삼원
봄맞이 특별세일
천종산삼
 소중한 분께 '명품산삼'을 선물하세요
 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산삼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명품 생산삼 최저가 세일
 마른삼 2박스 구입시 1박스 공짜!!
특별세일!
 \$500 두 박스 구입시
 \$300 한 박스 공짜!!!
 \$200 (선착순 Only)
 \$100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상담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찜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지개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별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퀸 \$379 트윈 \$229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퀸 \$419 트윈 \$299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	--	--	--	---	--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99,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Coming Soon

독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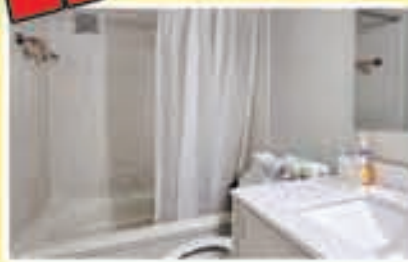
Contract

독점

예쁘게 리모델링된 콘도

Annandale \$250,000

콘도, 방2, 화장실1



SOLD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